MAY 24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F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40 1983년 5월24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May 24,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협동조합

예상순익 연$2백만

막강한 경쟁력·회원 95% 이용

협동조합 개점을 눈앞에 둔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는 18일 하오 협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 설립목적과 도매상 신의상사를 구매한 배경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차선겸 회장, 서준경 이사장, 이춘수 협동조합준비위원장, 강공선 사무장 및 신의상사 문인식 사장이 참석했다.

협회측은 조합의 필연성을 밀크, 빵등 전략상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단체행동의 결여로 리베이트를 못받는 현상태를 탈피, 1천여 회원이 공동구매, 공동분배로 최대이윤을 확보하고, 회원상점의 연간 총 구매액이 무려 3억달러나 될 만큼 협회가 성장한 점, 연간 약2백만달러의 순익이 예상되고, 이를 음·양으로 한인사회에 환원한다, 또한 조합에 물품을 공급하는 부대산업이 발생, 새로운 업체가 탄생하고 한인고용이 증가된다. 한국상품 수입에도 기여한다는 것등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연간 총구매력의 절반인 1.5억달러를 조합이 흡수하고,마진을 최저 3%로 볼때 이익금은 450만달러, 이중 비용을 빼고도 약2백만달러가 순익이 될 것으로 계산했다.

이밖의 수입으로는 제조업자의 물품전시댓가로 받는 연간 4만달러와 제조업자가 주는 리베이트 최저 9~10만달러가 있다. 리베이트는 과자등 「콘펙셔너리」상품까지 포함하면 9만~10만 × 3배나 된다. 또한 정부에 보낼 담배세금 월간 90만달러(신의상사의 경우)의 유보기간이 2개월이므로 이를 무이자로 이용하는 것도 큰 재정적 이익이라고 꼽았다.

조합은 하드웨어, 부엌용품, 펜, 문방구등을 한국에서 직접 수입, 중간수입상을 배제할 예정이다. 이 종류의 거래량은 조합매상고의 10%로 예상된다.

협회는 조합설립 방침을 세운 지난 6년간 도매업체를 신설하느냐? 아니면 기존업체를 구입하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 작년말부터 신의상사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새업체를 신설할 경우 대종상품인 담배의 구입어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기존업체의 손을 거쳐야 하고, 이때 최저 0.8%의 업차지(UPcharge)이윤을 붙여 주어야 하므로 연간 24만달러(회원 3백명의 구입액 3천만달러 예상시)를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상점설치비가 무려 15만달러나 소요된다.

이때문에 신의상사를 $39만 + $6만 차를모기지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계산됐다.

실협측은 "회원상점의 95%가 조합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회장은 조합에 반대하는 5%는 "한국인은 단결 못하므로 조합은 결국 와해될 것"이라는 부정적, 비관적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도매상들이 조합을 깨버리려고 압력을 가하거나 가격경쟁 전략으로 나올 경우에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는 "실협의 금년도 예산은 23만달러나 된다. 우리는 금전적으로도 누구와도 대항할 수 있다. 조합은 모든 면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협은 4월말 현재 약 7만달러의 잔고를 소유했다.

한편 문인식 신의상사 사장은 "실협이 신의상사 구입을 결정한 것은 현명한 처사이다. 조합 설립은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했다.

45년간의 역사를 가진 신의상사(문사장은 5년전 구입)는 동업자간에 신망있고 크레딧이 아주 좋은 회사라고 문사장은 말했다. 연 매상고는 1,200만달러, 고객의 70%는 교포, 직원 12명.

◆이춘수 협동조합준비위원장이 문인식 신의상사 사장과 악수를 나눈다. 왼쪽부터 차선겸회장, 이위원장, 문사장, 서준경이사장.

일본정부, 포기결정

김대중피납사건 사정청취

(도쿄) 일본외무성은 김대중납치사건의 사정청취에 김씨가 응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김씨 자신의 일본방문과 사건의 진상해명의 두가지 점이 거의 실현불가능이라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

첫째로 김씨의 방일문제는

(1) 한국정부가 김씨에게 발행해준 여권은 여행목적지를 미국으로 한정했고,

(2) 방일실현을 위해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작용하는 것은 이미 외교결착이 끝난 것으로 되어있는 한일간에 새로운 문제를 낳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김씨가 일본정부에 대한 회답중에서 제시한 사정청취에 응할 조건이 모두 동사건에 대한 한일간 정치결착의 재검토를 뜻하므로 일본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이제까지 정치결착에도 불구, 형사사건으로서의 수사를 계속하는 방향을 취해 왔으나 김씨측 태도가 바뀌지 않는한 앞으로 사실해명의 진전은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고후지다 관방장관에 따르면, 김대중씨의 의향은 미국정부의 5월10일자 서간형식으로 일본에 전달되었다.

그 속에서 김씨는 사정청취에 응할 조건으로 일본방문과 현장검증 요구를 비롯,

(1) 1973년의 납치사건은 일본정부가 김씨의 안전보호조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질러졌다.

(2) 일본정부는 사건의 진상해명을 공약하면서도 한국정부와 정치결착을 하여, 김씨의 인권을 무시했다.

(3) 1980년의 사형판결은 정치결착의 위반인데도 한국정부에 대해 이를 문제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金泳三씨 断食투쟁

자택 연금중····민주주의 회복요구

〈서울—UPI〉 자택에 연금중인 김영삼 전신민당총재가 18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김영삼씨 부인 손명순(55)여사는 『단식투쟁으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무기한 계속될것』이라고 전했다.

김전신민당총재는 작년 6월1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현대통령을 비난한후 서울에 있는 김씨의 자택에 연금상태에 놓여 있었다.

단식투쟁에 앞서 김영삼씨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는 ▲언론자유통제 ▲[illegible]적 실책 ▲사회적 [illegible] 등을 비난했으며 [illegible] 활동으로 수감중인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國防部건물에 불

火災원인 안밝혀져 사무실 10여개 태워

〈서울본사전화〉 18일 밤 11시35분(서울시간)께 서울용산구소재 국방부건물(10층빌딩)의 9층에서 불이나 사무실중 반이상인 10여개 사무실을 태우고 19일 새벽에 진화됐다.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일보
533-2361

공매 실시

6월11일, 토론토시

토론토시는 오는 6월11일(토) 오전9시30분 부터 64 머레이 로드(Murray Rd. Keele & Dufferin)에 소재하고 있는 메트로토론토 도로교통서비스 뜰에서 연례 토론토시 공개경매(Public Auction)를 실시한다.

시청구매처리국은 타자기, 캐비넷, 계산기등을 비롯한 사무실가구, 자전거, 중형차량, 산업용품, 정원과 잔디를 위한 트랙터장비등 100여 품목이상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낙찰자는 현장에서 물품을 교부하며 소유증명을 발급한다.

낙찰자에 대해서는 200달러짜리 확인수표(Certified Cheque)를 데파짓(Deposit)한후 잔액은 물품 교부시에 납입해야 한다.

경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 947-7326 빌·케네디(Bill Kennedy) 씨에게.

◁금주의 행사▷

—1983년5월23일(월)~29일(일)

▲5월23일(월) 상오7:15
한인교회 교내골프대회
곳 : 리치몬드·힐 골프클럽

▲24일(화)~6월21일
83년도 여름학기
곳 : 252 Bloor St. W. Tor.

▲26일(목)~29일(일)
중앙교회 신상부흥 사경회
곳 : 뉴·마켓의 파인·오챠드 캠프장
연락처 : 826-8986, 961-3189

▲26일(목) 하오8:00
맹인후원 위한 김자경음악회
곳 : UT 월터홀(한국일보후원)
연락처 : 533-2361

▲28일(토) 하오7:30
청소년예술제
곳 : Harbord고교강당
연락처 : 749-0220(정태교)

▲28일(토) 하오6:30 강연과 좌담의 밤
강사 : 강위조 목사
곳 : Inn on the Park(Tor)
연락처 : 925-3259, 3250

▲28일(토) 하오1시~5시
Kimchi Ltd. 개업파티
곳 : 봉화농장
연락처 : 833-6913, 248-6389

▲29일(일) 상오10시~하오4시
블랙·크릭 특별전시회
곳 : 블랙·크릭(Steeles × Jane)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ng I. Hyun C.A.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란콤화장품 대리점
교포들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해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 ~ 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교민을 위한 교민의 은행

외환은행장미적금 안내

기 간	계약액	월부금	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6.07	506.07
	1,000	162.88	12.14	1,012.14
1년	500	39.68	10.99	510.99
	1,000	79.36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14.84	514.84
	1,000	51.68	29.68	1,029.68
2년	500	18.92	17.93	517.93
	1,000	37.84	35.86	1,035.86

가장 높은 이자율 13.97%
●500불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한 배수 입니다

영업안내
□ 체킹구좌업무〈개인, 기업〉
□ 예금업무〈Saving, Term Deposit〉
□ 적금업무〈6개월, 1년, 1년반, 2년〉
□ 외환송금업무〈전신, 우편송금〉
□ 수출입〈신용장 개설, 통지, 매입〉
□ 대출업무〈개인융자, 사업자금〉
□ 모기이지〈주택구입, 부동산투자〉

뱅쿠버지점 9월중에 개점

韓国을 代表하는 世界有数의 国際的 銀行 韓國外換銀行이 全額出資하고 保証하는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C.D.I.C.가입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O.BOX 402, TOR., ONT. M5X 1E3
364-2890

블루어지점
629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6G 1K8
533-8593

뱅쿠버지점
ONE BENTALL CENTER #760
505 BURRARD ST. VANCOUVER
(임시) 683-1820

장거리 통화 할인제 도입계획

벨·캐나다 가입회원에 20%씩 할인

장거리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할인요금등록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벨·캐나다(Bell Canada)는 금년 가을 몬트리얼 지역에 이 제도를 도입, 2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경우 캐나다 라디오 TV 전신위원회(CRTC)의 승인을 거쳐 전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텔레플러스(Teleplus)200이라고 불리워질 이 할인요금제는 우선 오는 10월3일 6,000여명을 상대로 실시된다.

이 제도로 평상시 월간 장거리통화를 25달러에서 125달러까지 쓰는 사람들은 월5달러씩의 가입료를 내고 총 장거리요금 100달러까지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125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장거리 통화하는 사람은 10달러의 가입료를 내고 20% 할인받는다. 물론 하오6시, 밤12시, 혹은 주말통화에서 오는 정규 할인혜택도 아울러 받는다.

교수 65명 감원

토론토대학 예산삭감으로

토론토대학교(U of T)는 19일 통과된 83—84년 예산삭감으로 내년도에 65명의 교수와 110명의 직원들을 감원시킬 계획이다.

U of T사상 최대의 감원이 될 이번 조처에 대해 이날 예산통과를 반대한 대학통치위원회의 일원인 대학원생 캐시·로리에씨는 이는 "일종의 대학살"로 "대학이 이런 식으로 운영비 부족을 해결해 나간다면 내부로 부터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삭감으로 스카보로 캠퍼스의 프렌치·이머전·프로그램(French Immersion Program)도 취소된다.

UT 부총장 데이빗·놀런씨는 대학 입학생의 수가 과거 어느때보다 높은 이때에 문교부의 대학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온타리오 문교부는 내년도에 UT에 제공할 지원금을 6.5%만 인상시켰다. 온타리오대학위원회(Council of Ontario University)는 애초에 11.8%의 인상을 촉구했었다.

◆14일 한인양로원 건립기금 마련 자선음악회를 가진 등불중창단.

등불중창단 자선공연

교민 250여명 참석

등불중창단의 제4회발표회인 한인양로원 건립기금모금을 위한 「선교와 자선의 밤」이 약250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토) 중앙한인연합교회에서 거행되었다.

「등불」은 이날 밤 복음성가, 민요등 20여곡을 불렀고, 박희민목사의 설교, 이상철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또한 김선형의 바이올린 독주, 고자경의 풀룻독주, 고도경의 피아노독주도 이날밤 프로를 풍성하게 했다.

문남귀씨의 지도를 받고 있는 「등불」은 현재 천중환씨를 회장으로한 후원회를 갖고 있으며, 후원회는 그동안 「등불」에 전자올갠, 앰프시설, 대형스피커2개 등을 마련해 주었다.

교민동정

▲김철=온타리오주정부 중독연구소(Addiction Research Centre)과장인 김박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김박사는 이 심포지움에서 뇌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굉이로 이마 맞아 부상

교민가게에 강도침입

영즈·그로서리의 종업원 제이·손(16)군이 19일 밤 10시반경 괭이로 무장한 강도에 이마를 맞고 세인트·마이클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9 킨타이어·애비뉴의 영즈·그로서리에서 이날 밤 캐쉬를 보고있던 손군은 괭이를 든 강도가 캐쉬대로 와 돈을 요구, 이를 거절하다가 범인이 괭이로 이마를 치는 바람에 찰과상을 입었다. 범인은 캐쉬대에서 현금, 복권, TTC표등을 꺼낸후 돈·마운트·코트 북쪽으로 달아났다.

〈인터뷰〉

"토론토에 오페라단지부 구상중"

26일 자선음악회를 갖는 김자경교수

"김자경 오페라단은 LA올림픽에 김동진작 오페라 「심청전」을 공연할 계획이며 그때 토론토에도 들러 오페라단 지부를 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26일 자선음악회인 「성가와 한국가곡의 밤」을 갖는 김자경교수(왼쪽)와 피아노 반주자 왕현옥양.

오는 26일(목)밤 8시부터 토론토대학내의 월터·홀(Walter Hall)에서 성가와 한국가곡으로 엮어진 자선음악회를 갖기 위해 16일밤 토론토에 도착한 한국성악의 원로인 소프라노 김자경 교수의 말이다.

"나는 성이 오씨고 이름이 페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를 즐겨하는 김자경오페라단의 창설자이자 단장인 김교수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지난해에 워싱톤 D.C.에 지부를 설치했다면서 토론토외에도 LA, 뉴욕, 독일 베르린등지에 단계적으로 지부망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년 2월 이화대학교 음대교수에서 정년퇴직한 김교수는 자신은 아직도 일에 대한 의욕이 "20대"라면서 하나님께서 건강주시고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어 이곳에 오기 직전인 4월29일부터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 춘희를 김자경오페라단 창단16주년기념으로 공연했다고 말했다.

은퇴후에도 계속적으로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최근 오페라아카데미를 설립, 전문적인 오페라인을 양성하고 있다는 김교수는 또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한국에 「오페라하우스」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1940년 이화여전 피아노과와 성악과를 장학금으로 졸업한 김교수는 48년도에 도미, 2년간 뉴욕의 쥴리아드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58년 귀국하기까지 10년간 미국의 60여도시에서 100여회의 공연을 가졌다.

50년5월5일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카네기홀에서 독창회를 가진 김교수는 오는 6월6일 33년만에 다시 같은 무대에 서게 되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62년 서양화가인 남편 심형구씨와 사별한 김교수는 슬하에 2남1녀를 두고있다. 장남인 심홍씨는 12년전에 토론토에 이민왔기 때문에 결혼한 차남과 함께 살고 있고 장녀는 현재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 심씨는 이화대학교 하기캠핑에 갔다가 동해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김교수는 전했다.

김교수는 LA등을 거쳐 토론토에 올 계획이었으나 미국 비자발급이 지연되어 토론토에 먼저 오게 되었다면서 10년만에 실현된 이번 토론토 방문 한국 맹인 개안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갖게되어 더욱 보람이 있다고 강조했다.(영)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제5계절

어쩐지 나는 좋아

김종환
(KNOX COLLEGE M. DIV. 과정)

◆김종환씨

내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60년대 초반으로 생각된다. 여가수 한명숙씨의 「노란셔츠의 사나이」가 크게 힛트하여 그 당시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우리들까지도 때와 장소 가릴것 없이 모이기만 하면 목줄에 핏대를 세워가며 발악하듯이 이 노래를 불러댔다. 노래의 내용인즉 노란셔츠의 사나이가 비록 미남은 아니지만 말없고 씩씩한 생김샘이 어쩐지 맘에들고, 어쩐지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이 가요가 그렇게까지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명숙씨의 시원스런 얼굴과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여가수들의 가늘고 고운 목소리의 창법과는 달리 걸직한 허스키(Husky)로 불러제낀 탓도 있겠지만, 가사에 여러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쩐지」라는 단어의 묘한 뉴앙스가 뭇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당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쩐지」라는 순 우릿말은 영어로는 "Somehow", "Somewhat"이나 "Without Knowing Why"로 번역된다. 따라서 노래가사중의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를 좀더 자세히 산문적으로 풀이하면 「뚜렷한 이유나 조건도 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다」가 된다.

이같은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노래는 실락원을 그리워하는 아담과 이브의 심정을 불러 넣었을지 모른다.

보편적으로 우리와 같은 세대들의 사랑은 다분히 실리적인 면이 있다. 이유없이 조건없이 사랑하기를 꺼려한다.

상대방의 용모, 학벌, 재능, 재산들을 주판알 튕기듯 먼저 계산하고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소위 애정표시를 한다.

이같이 장사 속셈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받는 것 이상은 주지 않는다. 밑지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공평무사는 있지만 이미 희생적인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받는것 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랑의 경제학은 통하지 않는다. 거래가 여의치 않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다. 누구도 밑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이나 후회, 실연따위의 감정은 없다. 그와 똑같은 상품을 찾으면 또 나오기 때문이다.

마치 똑같은 브랜드(Brand), 모델, 연도, 색깔의 자동차가 한대가 아니듯, 우리들의 사랑은 개성이 상실된 대량생산의 규격품 사랑이 되어 버렸다.

「어쩐지의 사랑」은 개성적인 사랑이며, 무엇무엇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의 사랑이다. 따라서 인간회복의 사랑이기도 하다. 「미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없고 씩씩한 생김샘(개성)이 나는 좋다」는 노래 내용에서도 어쩐지의 사랑은 잘 나타난다.

어쩐지의 본 뜻처럼 사랑하는데 이유와 조건이 없다. 구태여 이유를 찾는다면 전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개성 때문이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때문이다. 설령 나는 열을 갖고 상대방은 하나를 가졌어도 어쩐지 하나때문에 사랑은 가능하다. 「어쩐지」 안에서는 상대방의 모든 부족과 허물이 덮여지고, 순수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가능하다.

연애할때는 그토록 사랑하던 두 연인이 결혼과 함께 시들해지며,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장탄식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자기 소유의 물건으로 평가절하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쩐지」의 근거가 되는 개성도 「무엇무엇에도 불구하고」의 희생적사랑도 찾아 볼 수 없다.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비극만 엿볼 수 있다. 이들의 마음은 석고처럼 굳어지고, 그속에선 에고(Ego)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이같이 에고(Ego)만 무성히 자라고 있는 사랑부재의 세상에 우리는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를 목이 터져라 불러야 할 것이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金聖鐘작

恐怖의 추리소설

黃色의 사나이

<238>

노파의 증언 ⑨

대머리의 인상이 금방 흐려지더니…

지당한 말이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들 있지 말고 놈을 체포할 수 있는 의견들을 말해봐요…』

대머리는 딱자를 두드렸다.

『노파를 지키는게 어떨까요? 놈이 정말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노파를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을겁니다. 놈은 노파를 데리고 국외로 빠져나가려고 들겁니다.』

어떤 간부의 외견이었다.

『그러니까 노파를 지키고 있다가 미행하자는건가?』

『네, 그렇습니다.』

『좋아. 하지만 놈은 여간 신중하고 교활한 놈이 아니야. 수사의 손길이 이미 자기 어머니한테까지 미쳤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다시 어머니를 만나려고 할까?』

『그래도 꿀을 사다줄 정도라면 효심이 지극한 놈 아닙니까. 그런 놈이 어머니를 그대로 두고 혼자 도망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아. 하여간 거기에도 배치시키도록 하지.』

『놈이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통같이 경제망을 펴야 합니다. 놈은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도 국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놈이 살아날 길은 하루빨리 한국을 벗어나는길입니다. 놈은 지금 한국을 빠져나가기위해 갖은·지략을 다 짜고 있을겁니다.』

대학교수처럼 얌전하게 생긴 사나이가 말했다.

『음, 그건 그래. 공항과 항만을 봉쇄해야 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하지?』

대머리는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상대를 들여다보듯이 하며 물었다.

『철통같이 봉쇄를 하면 놈은 독안에 든 쥐나 다름없읍니다. 제 아무리 날고기는 놈이라도 체포되기 마련입니다.』

『독안에 든 쥐니까 저절로 굴러들어올거라 이건가?』

그 말에 모두가 킥킥거리고 웃었다.

교수처럼 생긴 사나이는 얼굴이 벌개졌다.

『독안에 든 쥐니까 때려 잡아야죠.』

이번에는 와아하고 웃었다. 대머리도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때려잡지? 장작개비로 때려잡나? 아니면도끼로때려잡나?』

그는 갑자기 웃음을 거두고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도 웃음을 거두었다.

『그따위 말은 삼척동자도 할수 있어. 그게 수사간부의 의견이라는건가? 놈을 체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제시하라이거야.』

돋고 앉아있으려니 마인은 답답했다. 그리자 대머리가 그를 가리켰다.

『마형사 의견은 어떤가? 좋은수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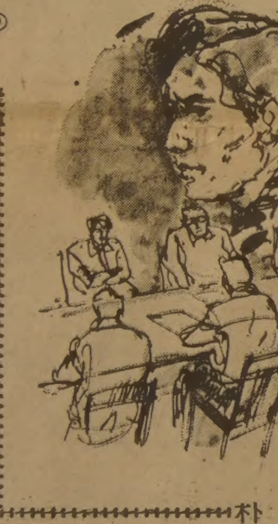
마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으로서는 좋은 수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대를 잔뜩 걸고있던 대머리의 인상이 금방 흐려졌다.

『이렇게 신원까지 밝혀졌는데 놈을 체포할 길이 없다니, 말이되는 소리야? 당장 체포하라구. 내친 김에 마형사가 놈을 체포하라구!』

『네,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습니다만 놈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朴 男 그림

축발전

일간지 발행 2주년기념

교민의 벗·길잡이 생동하는 뉴스·계몽기사

아카데미 T.V.& STEREO CO.

255 MORNINGSIDE AVE. ☎ 282-2820 김정운·전병걸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수난기의 남편들 〈3〉

김보경 (심리학박사 · 퀘벡병정신병원근무)

부부대립 피하고

임무분담 명확해야

같은 수난을 당하는 남편들이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대체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몇가지 방법을 관찰하면,

첫째, 자기 아내와 팽팽한 의견대립및 상호경쟁적 위치에 이끌만한 상황을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것이다. 아내와 남편의 영역이 따로 있어서 각자 거기에서만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심리적 갈등은 그 만큼 적어질 수 있다. 비록 같이 가게를 경영해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놓거나 더 이상적으로는 남편은 가게를 완전히 책임 맡고, 아내는 전적으로 가정일이며 자녀양육에 치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의 질서며 임무분담이 규칙화되면 좋은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물질적 안정에 너무나 급급한 나머지 질서를 깨어 버리는 것이다. 헬퍼를 쓰기보다 아내가 나와 일하면 그만치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생각과 한시간이라도 더 장사하여 다른 사람보다 앞서겠다는 생각은, 우선은 달콤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정에 큰 시험을 가져온다.

둘째, 어떤 남편들은 사회활동에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정신적 생활을 풍요히 한다. 지역사회활동, 교회활동, 또는 각양의 그룹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취미와 재질을 발휘할 때 자기자신은 물론이며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 긍지를 주게 된다.

세째는, 때로 자연에 흡입되는 일이다. 문명을 잠시라도 떠나 산이, 나 들에 가면 남성, 여성의 특성은 즉각 발휘된다. 남편은 텐트 치고, 먹을 것 구해오고, 밤에 선잠 자며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초서는 일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숫사슴의 긍지를 만끽하고, 아내는 믿음직스러운 남편을 재인식하게 된다. 자연은 위엄있고 신비로와서 언제나 인간을 서로 가까이 하게하는 힘을 준다.

네째는, 남편이 도에 가까운 취미를 섭취시킨다.

도란 원리이고, 도통이란 원리를 파악한단 말인데, 결국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추구하고, 깊이 경험하여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이다.

어떤 남편은 생선회에 도통하여 여기만은 신선이 되고, 어떤 남편은 차를 끓이거나 커피만드는데 도통하고, 어떤 남편은 꽃만지는데 도통하기도 한다.

이렇게 무엇엔가에 도통하는 힘을 기르면 모든 일을 깊이 관찰하고, 원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겨서 여유있게 세상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어떤 남편들은 자기 수양과 또는 종교적 체험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눈을 달리한다. 자기를 발견하고, 남을 발견해서 여자, 남자, 본가, 처가등의 대립적 개념에서 떠나 모두가 괴로워하고, 모두가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인간으로 볼 때 시기, 의심, 분노등을 쉽게 불태워 버린다. 아내를 아내로 보기 전 온갖 고민과 파로에 허우적거리는 인간으로 볼 때 내가 그릇한번 씻고, 방한번 치워주는 것이 자존심 상하게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것, 내가 찾아와서 먹거나 빨래등 가지고 가서 내가 한번 빨아봐도 기분이 좋은 것이다.

속좁은(?)여자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아내와 다닥다닥 싸우기보다 남편 자신이 폭넓게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의 여유를 우선 찾아야 할 것 같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HOW ARE YOU DOING?

실제로 영어가 사용되는 미국에 와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표현들이 많음을 누구나 느끼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인사하는 바로 「안녕하세요?」 How are you doing? 의 표현이다. 이 문형은 How are you ?보다는 격식을 덜 갖춘 표현이지만 저속한 표현은 아니다.

지난 3월5일 미국사상 최초로 있은 「카터 대통령에게 물어 보세요.」 Ask Presiden, Carer, 라는 국민과의 전화 대화 프로에서 카터 대통령은 「통화자」 caller와의 대화에서 How are you doing? 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How are you doing? 의 문형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답으로는 「좋아요」 Fine, Prettygood, Good,등을 사용한다. 이밖에도 How's it going? What's happening? 등 여러 표현이 있다.

A: Hi, John.
B: Hi, Mark. How are you doing?
A: Fine. And you?
B: Great. What's happening?
A: Nothing much. I'm just taking one day at a time.
B: Good for you. Take care.

A:하이, 잔.
B:하이, 마크. 안녕하세요?
A:네, 당신은?
B:참 좋아요. 별다른 일이라도 있나요?
A:별 일 없어요. 안일하게 소일하고 있죠.
B:잘된 일이예요. 잘 가세요.

*I'm just taking one day at a time. 직역을 하여 한번에 하루씩 갖는다는 말인데 결국 「안일하게 소일한다」는 뜻.
*good for you:잘 됐다.
*Take care:Take care of yourself.가 줄어든 것으로서 「조심하라」는 말인데 헤어질 때 인사말로 「조심히 가세요」 「잘 가세요」라는 뜻.
*「발음」 John:미식발음인 경우 「잔」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벽타기… 어린이 장난감

美·日에 「월 워커」 선풍

8개의 발 자유자재 춤도추고

미국의 장난감시장에 기발한 새 장난감이 등장, 루빅스·큐브가 나타났을때 만큼이나 흥분을 자아내고 있다.

흡착력있는 고무로 만들어진 이 장난감은 흡사 낙지 모양으로 8개의 발을 가지고 있다. 벽이나 창문에 던지면 찰싹 달라붙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방향을 옮겨 다니기도 하고 춤을 추듯 흔들거리기도 한다.

◆8개의 발가락이 달린 벽타기 「월 워커」장난감

이 희한한 물건은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 벽을 타고 내려오다 잠깐 생각에 잠긴듯 가만히 있는가 하면, 돌연 미친듯이 움직이는등 예측을 불허하는 움직임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일본에서 제조된 월·워커(벽다리)라는 이름의 장난감. 홀딱빠진 사람들은 한꺼번에 대여섯 개씩 사서 곡예를 즐기기도 한다.

색깔도 초록·파랑·노랑·빨강·검정색등 다양하고 값도 싸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1천만개 이상이 팔렸다.

작년 연말부터 미국에 선을 보이기 시작한 이 장난감은 개당 2달러선.

미국에서의 수입과 판매를 독점, 돈방석에 앉은 일본인 하꾸다·갠(33)이 이것을 처음본것은 작년11월, 워싱턴에서 조그만 수출입상사를 경영하던 그가 본국의 부모로부터 난생 처음보는 물건을 세살난 아들용 크리스머스 선물로 받은 것.

일본에서는 다꼬(낙지)라고 불리는 이 장난감을 본 그는 "불황으로 위축된 사람들에게 웃음을 불어넣자"고 생각, 크리스머스에 때맞춰 수입해 어린이들의 선물꾸러미에 웃음을, 자기 주머니에는 돈바람을 몰고온 것이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뉴스현장
●김동신의 「人間市場」
●한국 유명 人물을 렌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준성

KANATA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률을 알아보십시요.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1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함.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oor,
Toronto, Ontario M4Y 1P9
Telephone (416) 960-8663

IATA
세방여행사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유승빈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니펙(이영호)204-783-0007

GRAND OPENING
특별세일
특별세일기간
5월18일~6월4일
MOORGLO
50mm Bristle Brush 1/2 Price
$1.49
Benjamin Moore PAINTS
페인트롤러셀 $2.59 190mL
각종유명페인트 20%~50% OFF
1/2 OFF SPECIAL
Para
LATEX FLAT PAINT
4L $6.95
●무료견적●
Sun Paint & Wallpaper
619 McCowan Rd. and Lawrence Ave. ☎438-6965
영업시간 : 오전8시~오후8시(월~목)
오전8시~오후9시(금)
오전8시~오후6시(토)
대표 · 이광순

激務의 피로·복잡한 對人관계등 원인

스트레스, 웃음으로 풀어라

쌓이면 心因性疾患 유발

都市人이 고민하는 現代病 : 全部를 캔다

현대병의 원인가운데 큰 문제가 되는것이 스트레스. 현대인은 누구나 각종 스트레스속에 파묻혀 살아가기 마련이어서 이병에 대한 관심이높다. 특히 요즘과같이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한층 심한 스트레스속에서 시달림을 받는다. 이들 스트레스가 쌓이게되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마음에서오는 병을 낳는다. 현대문명의 유행병 스트레스의 정체와 해소법을 알아본다. 스트레스란 말이 유행하기는 불과 10여년 남짓하다. 그러나 스트레스란 낱말이 의학용어로 등장하기는 꽤오래다. 1935년 캐나다 몬트리얼 의과대학의 한스·셀리에 박사가 처음 스트레스 학설을 내놓은 것이다. 셀리에 박사는 당시 「쥐의 태반에 대한 생리학적 연구를 통해 외부에서 긴장을 주었을때 쥐의난소에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때부터 생물체의 기능에 지장을주는 모든 종류의 방해를 스트레스병으로 간주한것이다. 스트레스의 인자로는 크게나눠 물리·화학적인것과 심리적인것 사회적인것등이 있다. 물리·화학적인것으로는 춥고더운 일기의 변화는 물론, 이른바 현대문명의 부산물인 소음, 대기오염, 악취, 진동, 수질오염등 공해요인이 포함된다. 심리 사회적인것으로는 격심한 생존경쟁, 복잡한 인간관계, 가치와 윤리관의 급변등을 들수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에 대항하는 생체반응을 일으킨다. 이 반응은 우선 대뇌의 피질로 전해져 간뇌를 거쳐 부신피질로 전달되는데 이때 자극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각종 장기능을 항상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생체의 항상성이라 일컫는다. 이같은 작용이 적응부전증을 일으켰을때 스트레스병에 걸리게 된다.

심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긴장성두통, 불면증을 비롯, 자율신경장애등은 물론, 당뇨병, 비만, 위궤양등 각종 질환이 일어날수 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특히 샐러리 맨들에게는 더욱 심한 영향을 주게된다.

요즘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소위문화병, 매니저병(경영자병), 월요병등도 모두 스트레스병에 해당된다.

등 심한 스트레스를 준결과 10일안에 80%가 위궤양을 일으켰으며 이중 절반정도가 위출혈을 일으켜 죽었다는 것이다.

사람도 노하거나 긴장하며 숨이 거칠어진다.

이는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스트레스나 정서장애를 받아 자동조절 기능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조절기능장애가 잦아지면 호흡기질환을 일으킬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면 심한 우울증에 걸린다.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때로는 자상내지는 폭력으로 화하기도 한다.

스스로를 비관하는 사람

自己진단법

(1) 밤에 잠이 잘오지 않는다
(2) 원인없이 식은땀이 잘난다
(3) 머리가 뻐근할정도로 두통이난다
(4) 위가 아프기도 하고 설사가 잦다
(5) 쉽게 초조해진다
(6) 화를 잘낸다
(7)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8) 때때로 불안해진다
(9) 음주와 흡연의 양이 증가된다
(10) 정력이 감퇴된다

소음등 환경공해도 큰비중

오락·운동·레저…즐기는 생활자세를

〈이상 항목중 1개해당은 가벼운증세, 2~3개는 중정도, 4이상은 고도〉

특히 스트레스가 쌓여 일어나는 정서장애즉, 심인성질환가운데 소화기 장애는 으뜸으로 꼽힌다.

식사할때 신경질을 내면 소화가 잘안되고 이것이 쌓이면 소화불량증, 위궤양등의 증세를 일으킬수 있다고한다.

내과전문의들은 소화기질환 가운데 3분의1정도가 심인성질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원숭이에 대한 실험결과로도 입증된다고 한다.

원숭이에게 공포와 갈등들이 이에 속하는데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수가 있다.

우리주변에선 이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볼수있다.

최근 일본 자민당의 간부안 중천일랑씨의 자살도 스트레스의 축적때문이라고 할 정도이고보면 지위나 가난 부유층을 가리지않고 스트레스병에 걸릴수 있다.

따라서 안심은 금물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지않을수는 없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의 학설을 내놓은 셀리에 박사는 『우리가 스트레스로 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것은 곧죽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고도 하나 그정도가 문제이다.

문제는 강하게 받아들여진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받아 들여지는 강한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로 마음에 드는 환경을 찾는 일이다.

개인의 성향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어떤 방법이든간에 누적된 감정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슬픈일을 당해도 울지못하게 되면 내장기관이 대신눈물을 흘리는 격이 되어 여러가지 내장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울분을 그대로 참고만 있으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긴장시켜 고혈압, 긴장성두통과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자율신경의 지배하에 있는 장기들은 스트레스나 긴장과 같은 잠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때문에 이를 빨리 풀어주어야 한다.

그중 가장 손쉬운 방법은 웃으면서 살수있는 생활의 자세.

웃음속에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장병이나 심장병같은것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신경증, 정신질환도 없다는것이다.

또한가지 스트레스를 푸는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는 유머나 위트를 적절히 사용하는것.

우리들의 잠재의식속에 누적되어있는 감정들이 발산될뿐아니라 불안과같은 것을 방어하는 효과도 지니게된다.

음악이나 명화같은것을 감상하는것도 좋은방법.

샐러리맨들이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고 골치가 아프다면 서부영화와같은 시원한 장면을 통해 누적된 울분이나 반발심을 해소할수도 있다.

교통경찰관으로부터 딱지를 떼이고 화가나있을때 KO를 시키는 권투중계를 보면 감정이 평온해져 스트레스를 풀수있다.

직장인이 스트레스해소방법으로 가장 손꼽히는것은 술일것같다는게 전문의들의 설명.

몸에 해를줄정도로 지나치게 마셔서는 안되지만 퇴근길의 딱 한잔정도로 가볍게 마시는것은 정신건강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오늘날과 같은 생활에서 의사소통이나 감정의 교류가 빈약해 숨통이 막히는듯한 상황에서는 잠시나마 즐거운 기분과 대화를 하는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오락과 운동과 같은 레크리에이션등도 역시 좋은방법.

그러나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것은 레크리에이션에 아무런 정신적 부담감이 없이 즐거움을 느낄수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남들이 하니 나도 해볼까, 건강에 좋다니까 한다는 식의 레크리에이션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전과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성격이 다소 과격한 사람은 공격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좋아하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이를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누적될수 있다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그순간만은 고차원적이고 의식적인 정신활동을 잊어버리고 천진한 어린이와같은 정서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한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이밖에도 자기일에 보람을 찾고 만족해야되며 지나친 기대와 욕심을 버릴것, 모든생활을 규칙적으로 할것, 자신의 성격을 바로알것, 한가지이상의 취미를 가질것등 무수히 많다.

그러나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보다 참된 자아의 발견속에서 웃으면서 살수있는 정신생활의 여유가 지름길이란 것이다.

증 상

샐러리맨심신증을 통한 스트레스증상은 다음과 같다.

(1) 서질=글씨를 쓰려고 할때 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뻣뻣한 느낌이든다.

(2) 목비뚤어짐=얼굴을 똑바로 정면을 향할수 없음

(3) 얼굴경련=입술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가끔볼에 경련을 일으킴

(4) 두통=목과 어깨가 자주뻐근해지고 뒷머리부분에 통증이난다.

(5) 원형탈모증=처음엔 원인도 알수없이 팥만한 크기로 머리털이 빠지다가 나중엔 직경 5cm크기로 둥글게 머리카락이 빠진다.

(6) 어지러움=갑자기 일어서면 눈앞이 횡해지면서 어지럽다. 두통과 구토, 귀가 윙하며 울리는 증세로 일어난다.

(7) 수전증=손이 떨리고 일정위치로 놓아둘수 없다.

(8) 심장신경증=조그마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울렁울렁한다.

(9) 과호흡증=보통 1분간에 18회정도 호흡을하나 이증세가 되면 얕은 호흡을 자주하게 된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연재소설〉

혼돈 ㉗

글·이태준 그림·최미정

제2편 착수

"그러면 제1번 목표는 태영의 집이 되어야 돼. 우리집은 이미 내가 털어왔으니까."

영수는 집에서 훔쳐온 하루 매상을 바지 호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위에 올려놓으며 심접게 말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시에 테이블 위의 돈으로 쏠리고, 밤샘을 해 번들거리는 얼굴에 경련이 스쳐갔다.

밖에는 어느덧 날이 밝고 있었다.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어둠으로 덮어 주던 밤이 스멀스멀 쫓겨가고 있었다.

◆

조사장의 요구대로 조사장의 탐욕의 배만 채워주고 있던 나는 조사장댁의 혼인식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날, 드디어 마음속에 갈고 갈아 은장도처럼 숨겨두었던 칼을 뽑아 들었다.

20 동안 내가 눌리고 짓밟힐 때마다 갈며 한번도 써보지 못한 푸른빛의 예리한 날을 가진 칼을 뽑아 들었다.

내 가슴속에 숨겨진 칼은 피둥피둥 살이 찐 조사장의 배를 가를 것이고, 뱃속에 숨겨진 재물을 긁어낼 것이었다.

나는 조사장이 내 몸위에서 허물어져 내리면 서둘러 옷을 입고, 호텔을 빠져나가던 예전과는 달리 축 늘어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조사장의 품에서 빠져나와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린 다음 차분히 옷을 입고 응접실에 나와 조사장이 나올 때까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아니, 웬일이야 오늘은?"

하고 조사장이 헝클어진 모습으로 쇼파에 앉았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나는 칼을 뽑았다. 달빛처럼 냉랭하고 섬뜩한 빛을 내며 한번도 녹이 슬지 않았던 가슴 속의 칼을 뽑았다.

"계산을 할려구요."

조사장이 음흉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무슨 계산?"

하고 능청을 떨었다.

"조사장님댁 혼인식에 참석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얼마나?"

조사장이 응큼한 내 속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듯이 여유스럽게 물었다.

"열배만 주세요."

나는 가증스러운 웃음을 웃으며 대꾸했다.

"열배라니?"

"며느님 다이아반지값의 열배만 주세요."

"뭐라구?"

조사장은 안색을 바꾸며 나를 빤히 쳐다 보았다.

"왜요? 생각보다 너무 적은 액수라서 그러세요?"

"20만불을 달란 말이냐?"

"비싸면 안 주셔도 돼요. 그대신 식장에 가서 연설을 하겠어요. 사모님과 며느님, 그리고 호화스러운 혼인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왕림하신 여러 손님들 앞에서 나와 사장님 사이에 있었

거금을 요구하는 애자에 사색이된 조사장은…

던 일들에 대해서 연설을 할 거예요."

조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바래갔다. 조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바래갈수록 나는 소리를 내서 웃고 싶었다.

(남성들도 그들의 노리개감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앞에서 질려버릴 때가 있군요.)

빈정거리며 깔깔 웃고 싶었다.

"그건 너무 많다. 20만불은 너무 많다."

"에누리를 하실려구요? 딸같이 어린 나를 희롱하시고 에누리를 하실려구요?"

"너는 처녀가 아니었잖아?"

"역시 노련한 노장다운 말씀이시군요. 그래요. 나는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에누리는 않돼요."

나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아주고 싶은 혐오감을 느꼈다.

"너는 무서운 여자구나. 아름다움으로 거죽을 뒤집어쓴 무서운 여자구나."

조사장이 매이 풀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처럼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잠깐, 잠간만…"

조사장이 사색이 되어 문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질렀다.

"반지값의 열배를 달라고 그랬지? 열배만 주면 입을 다무는 거지?"

나는 대답을 않고, 그의 얼굴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사실은, 사실은 말이야, 그 반지는 만불짜리야. 속에 기스가 나서 만불밖에 주지 않았어."

나는 나도 모르게 애걸을 하며 서있는 그의 뺨을 후려갈겼다.

"내일 이시간에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요!"

"어디로?"

"어디는 어디예요? 여기지요."

나는 그에게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 호텔방을 나와버렸다.

(어머니, 어머니, 나는 드디어 하나를 꺾었읍니다. 어머니가 유전해준 매끄러운 몸으로 하나를 꺾었읍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길을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음이 후련하고 통쾌해서 얼마든지 걸어도 피곤할 것같지 않았다.

써늘한 가을바람이 후후 불때마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로수의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며 소리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점점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고 있었다. 허옇게 질려가던 조사장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허공을 향해 큰 웃음을 웃고 싶었다. 나의 의붓아버지의 귀에도, 여관주인의 귀에도, 나를 짓밟은 무수한 남성들의 귀에도 공포스럽게 들릴 괴성의 웃음을 웃고 싶었다.

내가 승리의 도취감속에서 깨어났을 때는 손목시계의 작은 바늘이 일곱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화장을 하고 출근 시간에 늦지 않을것 같았다. 나는 택시를 잡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쉽게 택시를 잡을것 같지가 않았다.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짧은 영어로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부를 수도 없는 처지인 나는 마음은 조급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할까?)

유리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를 타고 와서 데려가라는 생각 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공중전화를 찾아 나섰다. 공중전화를 찾아 두 블럭쯤 걸어왔을때 나는 엄지손가락을 펴고 팔을 차도쪽으로 내밀며 뒷걸음을 치고 있는 사내아이를 발견했다.

"힛치하이크!"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계속)

임시총회 소집공고

본 협회 회칙 제7조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같이 임시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3년 6월9일(목) 오후6시
□장 소 • DOWNTOWN HOLIDAY INN
TERRACE ROOM (3층)
89 CHESTNUT ST. TORONTO(토론토시청 북쪽)
□안 건 : 협동조합정관 심의통과

1983년 5월 일

실업인협회 협동조합(가칭) 발기총회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협동조합(가칭) 발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옵기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3년 6월9일(목) 오후6시
□장 소 • DOWNTOWN HOLIDAY INN
TERRACE ROOM (3층)
89 CHESTNUT ST. TORONTO(토론토시청 북쪽)

1983년 5월 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차 선 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1·4분기 成長率 8.6%

景氣회복

製造·건축·機械등 內需활기

景氣예고指標 1·3…「活況」접근

韓銀추계

올해 1·4분기(1~3월)중 GNP(국민총생산) 성장률이 8·6%에 달한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작년1·4분기의 5·6%나 재작년1·4분기의 0·6%보다 훨씬높은 수준이며 지난해중 최고의 분기별성장률을 기록했던 3·4분기(7~9월)의 7·1%보다도 더높은 수준이다. 1·4분기중 이같은 고율성장이 이룩됨에 따라 당초7·5%로 예상했던 올해의 연간성장률도 8~9%가 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1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韓銀이추계한 1·4분기중의 고율성장은 ①내수경기회복에 힘입어 올해들어서부터 제조업부문이 활기를 띠게된데다 ②아파트와 주택, 상가, 빌딩, 공장등 건축활동의 호조로 건설부문이 크게 신장된데 기인하는것으로 분석됐다.

1·4분기중 제조업은 15%, 건설부문은 20%의 높은 성장을 한것으로 추계됐다.

관계당국은 최근의 경기동향으로 미루어보아 2·4분기에도 계속해서 높은성장을 이룩할것으로 예상, 가을동사가 평년수준을 유지해줄 경우 올해의 연간성장률은 당초예상 7·5%를크게상회하는8~9%가 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편 최근의 경기동향은 업종별로 아직 기복을보이고 있으나 기계 금속 전자 섬유등 부문에서는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본격적인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인 경기지표도 경기예고지표(WI)가 1·2에서 1·3으로 올라서 활황국면으로 접근했다.

韓·中共대표 和氣찬 對話

日外相리셉션서

【東京=聯】아베(安倍) 일본외상이 17일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제23차 회의에 참석중인 각국대표들을 위해 베푼 리셉션에서 한국과 중공대표들은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화기에찬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南北韓대표들간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朴權본부 대기대사는 중공외교부의 王厚立 조약국차장과 악수를 한뒤 의견을 교환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의 한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차대사와 王조약국차장의 대화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않았으나 중공측은 한국이 중공민항기 공중납치사건처리에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 감사의뜻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中共, 北韓무마위해 金正日 訪中 요청

中共은 自國여객기의 被拉사건처리를 위한 최근의 韓·中共간 직접접촉과 관련, 北韓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對北韓무마작업에 나서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中共외교부장 吳學謙이 이달말 平壤을 방문할것이라는 北京측 발표에대해 한외교소식통은 18일 中共의 平壤방문이 형식상 北韓 외상 許錟의 초청에의한것이나 韓·中共간 직접교섭에대한 北韓의 불만을무마하려는 中共측의 배려로보인다고 말했다.

이소식통은 또 이번吳가 平壤방문에서 金日成의 후계자인 金正日이 中共을방문해주도록 요청하고 아울러金의 北京방문日程을 협의할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中東平和협상 蘇참여 안될말

레이건, 對이 F16機판매검토

【워싱턴AP=聯】레이건미대통령은 1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철군협정에 조인한데따라 시리아는 레바논에서 그들의 군대를 철수해야할 뚜렷한 이유를갖고 있는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소련을 중동평화협상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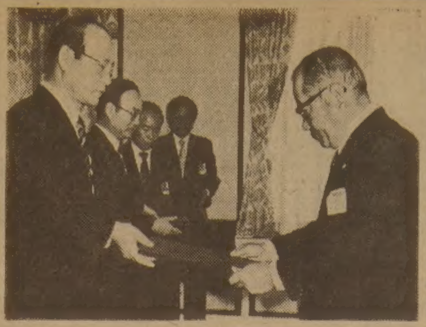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백악관기자회견을 통해 시리아는 레바논 정부의요청에 따라 그들의 군대를 레바논에 파견했던것처럼 이제 레바논이 철수를 요청하고 있기때문에 레바논의 철군요청을 수락해야 할것이라고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정부가 레바논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기로동의한데 따라 미국정부는이스라엘에 대한 F16전투기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문제를 검토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하비브 中東特使 시리아, 入國거절

【다마스커스(外電=聯)】시리아정부는 미국의 중동특사 필립·하비브의 입국을거절할것이라고 정부대변인이 시리아의 사나통신을통해 밝혔다.

全대통령, 平統간부에 任命狀



◇全대통령이 金貞烈 平統자문회의 수석부의장등에게 任命狀을 주고있다.

"統一 여건우리스스로"

聖業완수의 지름길은 국민和合뿐"

평화통일 政策諮問회의의장인 全斗煥대통령은 18일 낮 청와대에서 金貞烈 平統수석부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15명과 새로 임명된 운영위원, 分科위원장, 분과위원회 간사등 33명에게 任命狀을 준뒤 오찬을 함께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국제환경과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며, 그러한 환경과 여건은 우리자신이 主體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民族史의 발전과 後孫의 행복을위해 세계정세를 통일에 유리한 국면으로 우리자신이 앞장서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통일성업완수는 몇몇사람만의 힘으로 될수있는것은 아니고 모든 분야, 모든계층의 共鳴과 화합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자문위원 여러분의 중추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된 平統부의장단과 운영위원, 분과위원장은 다음과같다.

◇부의장▲金貞烈(首席)▲柳陽洙(서울)▲李正植(서울)▲權五賢(釜山)▲李永好(仁川)▲金鍾勳(京畿)▲金振伯(江原)▲延圭鑛(忠北)▲李大富(忠南)▲姜正俊(全北)▲李勳東(全南)▲陳道善(慶南)▲鮮于宗源(以北5道)▲姜映淑(여성)

◇운영위원▲洪性澈(서울)▲權五賢(釜山)▲李永好(仁川)▲李炳都(京畿)▲李鶴基(江原)▲李晃相(忠南)▲徐廷珍(全北)▲姜信雨(慶北)▲金尙永(慶南)▲安明連(以北5道)▲鄭光波(여성)▲金奎璧(노동)

◇분과위원장▲洪性澈(정책심의)▲趙德松(교육홍보)▲具滋曝(지역협력)▲金鳳鶴(경제통상)▲申榮均(체육문화예술)▲趙香祿(종교)▲姜映淑(여성)

국제 5種경기聯盟 토펠트會長을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8일하오 청와대에서 국제 近代5種경기연맹의 스븐·토펠트회장(스웨덴人)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內務部 法개정안

競技場 술병搬入 輕犯처벌

비밀댄스홀出入 길가呼客도

앞으로 운동경기장에 술병등을 들고들어가는사람, 노상호객행위자, 비밀댄스홀에서 춤을추는 사람들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구류나 벌칙금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내무부는 18일 이밖에도 자연석에 이름을 새기는 행위등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초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관련기사3면

내무부는 지금까지 길가에서 손님을 끄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했고 각종행사장에서의 소란행위는 빈병을 던지거나 싸움을 벌일때만 단속을했으나 호객행위와 경기장에 술병등을들고들어가는 행위도 경범죄단속규정에 추가한것이다.

또 자연훼손규정도 고쳐 지금까지는 명승지나 공원에서 꽃이나 나무등을 꺾는행위만 처벌했으나 산과 계곡에서 돌을캐거나 돌에 이름등을 새기는 사람도 처벌키로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비밀댄스홀에서 춤을 가르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만 처벌하고 춤을 춘사람은 인근소란죄를 적용, 처벌하고 있는것을 경범죄에 단속규정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도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쓰고 한자를 모두 한글로 고쳐써 누구나 알기쉽도록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301

忌避者時代의 막車가 떠난다

「아빠 빠이 빠이」 申鉉國 작

떠나가는 아빠에게 빠이 빠이를 펼쳐 보인 아기의 다섯손가락이 어린 단풍잎같다。어머니 등뒤로 요즘은 찾을수없는 중절모를 쓴 중년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은 5·16혁명직후인 1961년 가을의 大邱역 구내。병역을 기피하고 있던 청·장년들이 국토건설단에 편입되어 뒤늦게 報國의길로 떠나고있다。이로써 긴 기피자시대는 끝났다。작가 申씨에따르면 화면의 등장인물들은 한동안 작별의시름에 잠겨있었으나 기적이울리고 아기가 손짓을 보이려하는 순간,이처럼 행복한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사진속의 어머니는 당시 大邱시내에서 꽃가게를경영하던 주부였다고 申씨는 밝혔다。【金薰기자】

렌즈의 時代史

한국寫眞半世紀展서

레이건 極東방문 年內엔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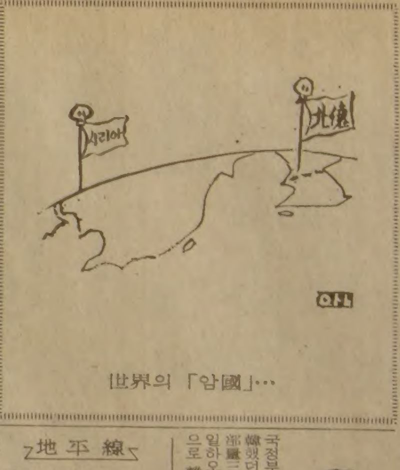
레이건美대통령의 연내 극동방문계획은 국내문제에 밀려 실현되지못할것같다고 뉴스·위크지는 국무성과 국가안보위원회(NSC)가 다같이 레이건이 한국과 일본을 연내방문하기를 원하고있으나 보좌관들은 레이건의 극동여행이 말썽많은 교역문제에 초점이 모아져 결국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쟁점을 부각시켜줄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우려하고있다고 보도했다.

동지는 또 레이건이 극동지역방문을 하게되면 당연히 北京도 들러야하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가 적절치못하다고 지적했다.

스노베日特使 離韓

나까소네(中曾根康弘) 일본수상의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순방결과를 한국정부에 설명하기위해 訪韓했던스노베·료오조(須之部量三) 日本정부特使가18일하오1시30분 JAL便으로 離韓했다.

社會漫評



世界의「암國」…

地平線

술은 百藥의 長이 되기도하고 萬病의 근원이되기도한다。술을 한잔만먹으면 건강에 좋으나 두잔째부터는 쾌락에 빠지기쉽고, 세잔째는 방종, 마지막잔은狂氣를 부르게된다。▼사람이 살아가는데 참지못하는것의 첫째가 술, 둘째가 여자, 세째가 노래라고도하니 거꾸로 술만큼우리생활과 가까운것이없는지모른다。청주1合이면밥한공기의영양과맞먹는다고 밥보다 술을좋아하는사람까지있으니…。▼이번에우리나라사람들의 음주량을조사해봤더니 놀라운결과가 나왔다。생활수준에 비해 술 소비량이 선진국수준에가깝고 음주인구가1천7백40만명이란것이다。게다가 4홉들이 소주한병을 거뜬히 마시는 사람이 68만명을 넘는다고하니 어느새 이렇게 술을퍼먹게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술을 많이 마시는 프랑스나 스웨덴、미국에서는 알콜중독이 큰사회문제로 된지 벌써 오래다。WHO의 알콜중독 전문위원회에 의하면 「純알콜量으로쳐서 1백50g이상 청주5合4勺、맥주6병、위스키더블로 6잔이상」을 매일 먹는 사람은 대량 음주자、즉 알콜중독후보에오른다는것이다。▼물론 술을 마시는 사람의 음주량、체질에 따라 알콜중독도 달라진다。또 알콜중독에는 急性과 慢性이 있다。急性은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먹어 일시적으로 의식장해를 일으킬 때를 말한다。이때 重症의 경우엔 죽기까지 한다。보통 알콜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慢性을 말한다。몸이 떨리고 의식이 혼탁해지며 幻覺症、病的 酩酊을 일으키는 症狀이다。▼이 알콜중독자가 우리나라 전인구의 1·8%나 된다고하니 소홀히할 문제가 아니다。우리국민가운데 음주인구를 절반으로 칠때 이들이 매일 2홉들이 소주반병씩을 마시고 있으니 술이 약인지 병을 주는것인지는 곰곰 생각해 볼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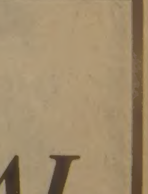
HAPPY TIM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YAMASA
SOY
SAUCE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국으로 가시는 길—KAL

알찬 서비스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읍니다.

대한항공은 주23회의 편리한 스케쥴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한국을 직결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11편, 뉴욕에서 주4편, 호놀루루에서 주 8편씩 서울로 직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뿐입니다.

모국을 방문하실 때는 어느 항공사보다 편리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11	월·수·토	14:00	화·목·일	18:40	NONSTOP
KE015	화·목·금·일	23:30	목·토·일·화	06:20	앵커리지
KE001	화·목·토·일	10:00	수·금·일·월	19:30	호노루루·東京

뉴욕➡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07	화·목·금·일	23:50	목·토·일·화	06:00	앵커리지

호노루루➡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50	월·수·금·일	01:40	화·목·토·월	06:10	NONSTOP
KE001	화·목·토·일	13:30	수·금·일·월	19:30	東京

* 모든 시간은 현지시간 임
*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精誠을 다하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대한항공 Tel: (416)862-8250
390 BAY ST. SUITE 720
● 서울여행사 535-6004
● 제일여행사 535-2377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한국여행사 531-4607

시리아 撤軍협정에 報復
베이루트 封鎖작전

【할데·베이루트AP·AFP=聯】레바논주둔 시리아군은 1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레바논주둔 外軍철수협정에 서명하기 직전 베이루트와 다마스커스를 잇는 모든 도로를 폐쇄하는한편 시리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레바논 북부지역및 베카계곡과 외부와의 도로통신망을 전면 차단했다.

시리아군의 이같은 도로 통신망차단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해석은 아직없으나 시리아군이 베이루트를 겨누어 봉쇄작전을 시도한것 같다는추측이 나돌고있다.

베이루트는 레바논북부의 트리폴리항구를 통해 연료공급을 받고있다.

교착 상태면 이、부분撤收

【텔아비브AP·聯】모세·아렌스 이스라엘국방상은 시리아와 레바논이 18일부터 레바논주둔 外軍철수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며 수주내에 外軍철수문제에대한 시리아의 공식입장이 드러날 것이라고말하고 만약 시리아가 레바논철군을 계속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은 부분撤軍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렌스 국방상은 17일이스라엘과 레바논이 撤軍협정에 조인하기 직전 이스라엘軍방송과 회견을갖고 이렇게 말했다.

나까소네日首相、中共방문 희망
"장래 정치일정중 하나로 검토"

【東京聯】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은 16일 중의원안보특별위원회에서자신의 중공公式訪問에 관심을 표시했다.

나까소네수상은『나는나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는데있어서 중공방문도 장래일정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전쟁仲裁 往復외교
페灣特使 이라크에

【바레인聯=聯】페르시아灣원유수출사고 수습을 위해 GCC(페르시아灣협력위원회)특사자격으로 이란·이라크 왕복외교를 벌이고있는 연안국각료 2명은 17일 테헤란을 떠나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도착했다.

사바·알·아메드 쿠웨이트외상과 라시드·압둘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무상은 GCC의 이란·이라크평화안을 가지고 이란의 알리·하메네이대통령과 회담한후 이날 바그다드로 떠났는데 이들은 18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열리는 GCC특별회의에 왕복외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外信안테나

敎皇 내달波방문
79년이어 두번째

【바티칸시티AP聯=聯】로마교황청과 폴란드정부당국및 가톨릭교회는 오는6월16일부터시작될 교황 바오로2세의 폴란드방문일정을 17일 공식발표했다.

교황청은 이날 지난79년에이어 두번째로 이뤄지는 교황의 모국방문일정을 발표하면서 당초 1주일간으로 예정됐던 방문기간이하루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조기警報機 4대싱가포르에 판매
美국방성、海上수송로 보호할목적

【워싱턴AP=聯】美국방성은 17일 인도양과 태평양사이의 전략요충지 말래카해협을 통하는 西方의 주요해상수송로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기인 E2C정찰기 4대를 싱가포르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西方정상회담 참석
대처、내달總選불구

【런던UPI=聯】대처영국수상은 17일 다음달 6월9일 총선에도 불구하고 오는28~30일 미국의 윌리엄스버그에서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에 참석할것이라고 발표, 미국방문취소설에 종지부를 찍었다.

급진적 核凍結운동 오히려 전쟁만조장
美하버드大서 주장

【보스턴(美매사추세츠州)AP=聯】정치적인 조건들이결여된 상황에서 강력한「核동결」운동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발발의위험을 초래할수도 있으며 이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타결책이 필요하다고 美하버드대학팀의 核무기연구가 지적했다.

蘇、새SS미사일 開發

【워싱턴AP=聯】소련은강한 폭발력을 지닌 고성능재래식탄두를 장착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모든 비행장을 공격권내에 둘수있는 SS21, 22, 23등 세종류의 지상발사미사일을 현대화하는 중이라고 리처드·덜로어 美국방성 수석연구원이 18일 밝혔다.

덜로어수석연구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들 신형미사일은 소련이 이미 동구에 배치한 프로그나 스커드등 구형미사일에 비해 정확도나 폭발력면에서 모두 개선된것이라고 말했다.

덜로어연구원은 이 소련미사일들이 동구에서 발사되면 서구의 모든비행장이 공격권내에 들게된다고 밝히면서 소련의 이같은 위협은 核탄두보다는 재래식탄두로 가해질것이라고 강조했다.

蘇聯군사력에 대한 미국방성보고에 의하면 SS22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9백㎞이고 SS21의 사정거리는 약1백20㎞이며『정확도가 뛰어난 전술지대지미사일로 평가되는 SS23의 사정거리는 약5백㎞이다.

◇核軍縮 헛탕만 치는 美·蘇의「빈손 악수」 폴·니치美수석대표㊧가 17일 제네바駐在蘇대표부에서 재개된 美·蘇유럽배치중거리미사일감축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蘇聯측수석대표 줄리·크비친스키㊨와 악수를 교환하고있다.【제네바17일AP聯=聯】

蘇부수상 平壤방문

【서울=聯】蘇聯내각 부수상 N·V·탈리친이 이끄는 蘇정부 대표단이 소·북괴간 경제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18차 회의에 참석키위해 16일 平壤에 도착했다고 북괴보도들이 17일 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안드로포프체제 출범이후 蘇각료로는 최초의 평양방문길에 나선 N·V·탈리친은 북괴부총리 桂應泰를 맞아 소·북괴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희망했으며 이에대해 탈리친은 고려연방안등 북괴의 통일방안에대한소련측의지지를 다짐했다고 북괴보도들은 전했다.

撤軍협정調印 항의 레바논大使를 추방

【베이루트聯=聯】리비아는 레바논·이스라엘양국이 美중재하에 마련된『치욕의 협정』(레바논주둔 外軍철수협정)을 17일 체결한데 대한 항의로 트리폴리주재 레바논대사에게 리비아를 떠나도록 요구했다고 리비아관영JANA통신이 보도했다.

아프간에 1개師 增派
蘇軍、게릴라와 激戰說

【이슬라마바드聯=聯】소련은 6천명에 달하는 사단규모의 새로운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추가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방외교관들이 17일 전했다.

이 외교관들은 소련군이 아마도 지난주일간에 걸쳐 이란접경근처의 省都헤라트市에 진주했으며 최근 이들과 아프간회교저항군간의 치열한 전투가 목격됐다고 말했다.

추가파병된 소련군들은 본토로부터 직접 헤라트市남부 신드바드에 위치한 蘇공군기지로 이동해왔으나 이들이 10만5천명에 이르는 기존 아프가니스탄주둔소련병력에대한 증원군인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않았다.

人權協서회견…정부측은 拷問부인
파키스탄、政治犯 9명致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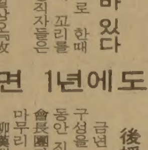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聯AP=聯】파키스탄은 유엔인권헌장서명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이 3백75명에 이르며, 지난77년지아·울·하크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이래 최소한 9명의 정치범이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15일 파키스탄인권협회가 밝혔다.

"財産稅과다책정 是正을"
民韓、서울출신의원들 市에촉구

民韓黨의 서울출신의원들은 18일 모임을 갖고 서울市가 부과한 財産稅가 과대책정됐다고 결론, [illegible] 일 서울시장을 방문해 是正을 촉구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올해 물가인상억제목표와 賃金인상선이 각각 6%이며 금년도 성장목표도 7·5%인데 이를 웃도는 財産稅부과는 서울市의 행정모순이라고 지적, 이같이 결정했는데 의원들은 특히 건물분 재산세부과가 汝矣島·江南등 특정 告示지역과 변두리지역 아파트등이 細分化가 안된채 건물구조에 따라 무차별적용됐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申英秀부회장 FIEJ會議 참석 向英



한국일보申英秀副會長(사진)은 25일부터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신문발행인협회(FIEJ)회의참석차 18일하오 KAL便으로 떠났다.

金총리 楊州에서 직원들과 모내기작업

金相浹국무총리는 18일상오 총리실직원들과 함께 京畿楊州郡州內面南放里에서 모내기일손돕기 작업을 [illegible]

海外토픽

비타민A결핍 어린이 장님사태
방글라에서 최소한 1만7천명

최소한 1만7천여명의 방글라데시어린이들이 매년 비타민A의 결핍으로 장님이 되고있다고 방글라데시보건성장관인 [name not legible] 16일 밝혔다.

그는 또 한살에서 열다섯살사이의 28만5천여명의 어린이가 해마다 다른 영양소의 결핍으로 야맹증에 걸리고 있다고 말하고 방글라데시정부가 이같은 조사결과에 크게 우려, 유엔아동기금(UNICEF)과의 협조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聯】

英최고급카페 로열 食品衛生위반 被訴

런던에서 가장유명한 음식점중의 하나인 카페·로열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당국에 고발당했다.

공중보건당국인 웨스트민스터市위원회는 17일 카페·로열의 업주에게 식품위생규정상의 42개 조항과 안전규정 2개조항을 위반했다고지적, 오는6월16일 법정에 출두하라고 명령.

카페·로열은 지난 19세기 프랑스인이 처음 문을 연 고급식당으로 그동안 찰즈·디킨즈, H·G·웰즈, 버나드·쇼, 오스카·와일드등 이름있는 문인들이 단골로출입했던곳이다.【聯】

中共大生 自國語로 피가로의結婚 公演

중공의 중앙음악원소속 오페라학과 졸업반학생들은 이달말 졸업공연으로 중공에서는 최초로 모차르트의 오페라「피가로의 결혼」을 중국어로 공연한것이라고 北京의 한신문이17일 보도.

이 신문은 지난 2세기간 이 오페라가『진보적인 민주주의사상과 절묘한 음악적 예술성』때문에 여러세대에 걸쳐 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고 지적.【AP】

比 名여자陸上선수 性검사서 男子판명

소년처럼 보이던 필리핀여자육상계의 준마가 성검사에걸려 곧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동남아시아 경기대회에출전할 국가대표팀선발에서 탈락됐다고.

필리핀의 영자지 데일리·익스프레스는 17일 기나·수칼선수(17)가 성검사에서 남자호르몬에 강하게 반응을보여 대표팀에서 빠짐으로써 동남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할 필리핀여자릴레이부문에 어두운 전망을 주고있다고보도.【AP】

社說

中共機사건 一段落

18일 中共의被拉여객기가 金浦공항을 이륙,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동안 2주간에걸쳐 우리측협조로 原狀회복을 포함한 모든 정비와계기실험을 마치고나서 中共측 劉민항부국장과 白기장등 승무원들、그리고 치료중이던 중상자까지 태우고 機首를 上海로 돌린것이다. 그들은 韓國이 승객및승무원의 안전확보와 기체의송환、부상자 치료등에 적극협력해준데대해 거듭 높이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로써 中共民航機납치사건 자체의 본줄거리는 매듭지은 셈으로 되었다. 당면한 후속조치로 납치범이라고 일컫는 무장승객 6명의 처리 문제가 주목을 끌게한다. 中共측은 그들의 引渡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외신들은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北京당국이 참관을 목적으로 약간명의 관리및 기자들을 파견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전한다. 韓國정부가 굳이거부할바아닌것같다.

나아가서 被拉사건의 처리를에워싸고 國交가 없는 韓國·中共간의 첫 公式會談이 서울에서 열렸고 직접교섭을 거쳐 合意文書를 교환했던 새로운 사태진행의장래귀추가 큰 관심을 자아내게한다.

어차피 납치범 또는 정치범의 입국후 처리는 우리의 主權的관할권행사의 대상으로 된다. 다만 이경우에 헤이그協約등 국제협약과 국제관례가 십분 존중되는 동시에 政治次元의 고려도 불가피시된다. 하나 국가의 理念的體統과 국민의 社會通念 또한 근원적 고려요인이게 마련이다. 게다가 韓國의 司法權은 行政府로부터 독립된 것이다.

한편 韓國·中共간의 이번 공식적인 직접對坐의 성과는 비록 특정한 돌발사태가 몰고온 부산물이라해도 그先例정립과 發展的意義는 결코 과소평가될바 아니다. 언젠가는 부자연스러운 未修交상태를 벗어나 정상적 善隣관계를 다질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쌍방에 고루 자리잡혀가고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韓國·中共관계의 正常化는 지금껏 巨視的인「長征」일을 내다보게할 따름이다. 韓半島의 미묘한 地政學的座標에비추어 우리와 中共、中共과 北韓、우리와 臺灣(自由中國)、日本과北韓、그리고 美·蘇양국의 지대한 관심등 착잡한 力學的要因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中共정부가그 國益의 측정에서 과거의 先入觀念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않으리란는 전망을 부언해두고 싶다. 또 韓半島의 평화유지가 中共자신의 4大現代化작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요청중의 하나라면, 韓國觀도 이번일을 계기삼아 再調整되는 방향설정이 가능할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큰 부담감없이 양국간의 통상·스포츠·항공협력·상호방문등 非政治的分野의 각종交流 증폭을 추진해 나갈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中共民航機被拉사건이、機體송환을 고비로 순조롭게 일단락된데 대해、퍽 흐뭇함을 느낀다. 그 과정에 이룩된 상호理解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後續조치와 關係발전도 서로 面子(體面)와 體統을 존중하는 가운데 合理的調整을 과시할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막힌 곳을 뚫자면…
—長官들 입이 먼저 열려야 한다

우리나라 長官들은 입이 무겁다. 長官들의 定例 記者會見이 지난 1년동안 거의 없었다니、그런 생각이 든다.

생각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長官들은 국민을향해 할 말이 없는가. 長官들이 말문을 닫고 있는 行政風土의 의미는 무엇인가.

長官의 所任중 이른바 記者會見은 法定한 義務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취재기자 長官會見은 업무상의 規定事項이 아니다.

記者會見은 長官이 한 부처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따른 側面조치로서、그 부처의 業務需要에 입각한 일면을 지닌다. 기자의 長官會見 역시 업무수행의 일부로서 職業需要에 입각한 일면일 뿐이다. 長官의 記者會見은 이런 두가지 需要의 상호일치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記者會見은 그런 需要의 일치보다 높은 次元에서의 요청을 충족하자는데 더큰 뜻이있다. 그것은 長官이 任免權者에게 책임을 질뿐더러、그들통하여 施政대상인 국민에게 책임을진다는 함축이다.

이 경우의 국민은 헌법에 말하는 主權者요、납세자이며、「알權利」를 가진 전체、主人의식을 가지도록 啓導된 公衆이다. 그들을 향한 설득、그들의 이해와 호응없이, 長官의 所任을 다할수가 없으니, 국민을 향한 책임 또한 온전히 할수없다. 記者會見없는 행정은 그래서 큰결함을갖게마련이다.

만일에 행정각부의 정책방향、행정내용、요망사항을 국민에게 전달함에있어서 言論을활용한것이상의 발도가있다면 長官의 記者會見은 없어도 그만이다. 그리고 책임자의 말보다 설득력있는 弘報방안이 있다면 長官이 입을 다물어도 된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가 못하다고보기에、우리는 굳게닫힌 長官의 입가에서「나를 따르라」는 표정을 읽는다. 長官들이 말문을 여는것이 정부와 국민의 對話를 트는 길이다. 그런 對話없이「막힌곳」은 뚫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점을 아쉬워할뿐、長官會見을 구걸할생각은 없다.

爆彈될뻔한 市外버스

「달리는 흉기」란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는 보행자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가리킨 말이다. 지난16일 삼척을떠나 강릉으로 가던 직행버스는 흉기라기 보다는 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20명의 손님을 태우고 시속40㎞로 달리던 버스의 운전사가 머리를 창문쪽으로 떨어뜨린채 졸도、안내양이 소리치자 손님이 뛰어나와 브레이크를 밟았다한다.

8개월동안 안내양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23세의 승객 이관순양이 버스를 살린 것이다. 그러나 졸도한 운전사는 이내 숨졌다. 자칫 20명의 손님들이 한사람의 운전사에게 목숨을 맡긴채, 그와함께 죽음길을 같이 갔을지도 모를일이었다. 비슷한 사건은 작년12월 서울에서도 있었다. 실신상태에서 버스운전사가 전주를 들이 받은 사고였다.

결국 오늘날의 버스 손님들은 목숨을 한사람의 운전사에게 맡기고있는 셈이다. 그런곳에서 전국의 버스와 택시운전사의 89%가 두가지이상의 직업병을 갖고있다는 조사결과(서울大 金環東교수)는 소름끼치는 현실이라고 해야겠다.

작년 3월에 밝혀진 이조사로는 운전사들의 60%가「만성 피곤증」에 시달리고 있으며、58%가 안정제를 먹고있다한다. 교통사고의 93·4%가 운전자의 과실때문이고, 그 주요원인은 하루평균 9·3시간에서 16·2시간에 이르는 영업용차량 운전사들의 무리한 근무와 과로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떠맡고있는 대중교통수단, 특히 버스운전사들의 건강확보는 바로 시민의 안전확보라고 할수있다. 버스운전기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철저히 관리돼야한다. 여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통행정당국이 운전사의 건강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무리한 근로조건을 하시바삐 정상화해야한다. 교통부가 추진하고있는 하루2교대제는 빠를수록 좋다. 그것도 지금의「격일 근무제」처럼 허울좋은 구호로 그쳐선 안된다.

따지고 보면 과로에 지쳐 신경성 의약품을 먹고 핸들을 잡고있는 운전사는 모두가졸도위험을무릅쓰고있는 상태나다름없다. 이끔찍스런사태는 당장해결해야된다.

政局往來

작년처럼 豐年됐으면

金相浹국무총리는 18일상오농촌모내기일손돕기작업을위해 京畿楊州郡州內面南放里에 나가 모내기를 하며 금년 농사의 전망등을 살폈다. 金총리는 桂鳳明楊州郡守로부터 농사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장의 안내를 받아 정성들여 모내기를 하며『금년에도 작년과같은 豊年이 들면 좋겠다』고 祈願.

金총리는 移秧機로 모내기작업을 하고있는 이웃 논을 찾아가『하루 얼마나 모를 심을수 있느냐』『몇줄로 심어지느냐』『臺當가격은 얼마냐』라고묻는등 移秧機에 의한 모내기작업에 관심을 표명.

金총리는 이어 논두렁에서 관계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被拉中共機가 春川에 不時着했는데 첫 보고를 받고는 이 엄청난 일을 어쩌나 하고 난감한 생각이 들었으나 다음날 외무부가 모범답안을 갖고와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관계部處의 勞苦를 치하했다.

「留閣說」은 들은바 있다

被拉中共여객기사건으로 한때 주춤했던 改閣說이 다시 꼬리를 물자 民正黨의 고위당직자들은 異口同聲으로 否認.

陳懿鍾대표위원은 18일상오『改閣은 최고통치자의 고유권한일뿐 黨에서 한마디도 하는일이 아니잖느냐』고 말했고 權翊鉉사무총장도『우리黨도 귀가 밝은편이지만 아직 改閣說을 들은바없다』고 斷言.

權총장은『노루가 제방귀소리에 놀라 이리뛰고 저리뛰듯 공연히 얘기를 꺼낸사람들이 말을 만든것 아니냐』며『流言蜚語가 나돌때마다 해명을 해야한단 말이냐』고 反問하기도.

그는 이어 지난14일 黨研修院 수료식도중 자신의 靑瓦臺방문을 改閣說과 有關시킨 일부의 추측에대해『내가청와대에들어갈때마다 改閣한다면 1년에도 수십번은 改閣을 해야한단말이냐』고물었는데 마침 同席한 李鍾贊총무도『留閣說은 들은바있다』고맞장구.

한편 權총장은 지금까지 否認해왔던 최근 야당간부들과의 連鎖接觸說에 대해서도『정치하는 사람이 누굴 못만나겠느냐』고간접적으로 是認했다.

"청와대 갈때마다 改閣한다면 1년에도 수십번 改閣한단 말인가"

宿題議案관철로 苦心

18일상오 民韓黨대책회의는 11대국회에들어와 黨에서 發議, 계류중인 15개宿題議案을 오는6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妙案을 짜내느라 苦心.

이날 未決議案관련 小委의원들은『정치의안들은 총무단이 활발한 對與협상을통해 타결점을 모색하라』고 注文하는 한편『국회 농수산위에 계류중인 農·水·畜協임원 任免관계법개정안의경우 절충이 되는듯하다가 여당이태도를 突變했다』면서『우리는 여당에 開選制까지 양보했는데 총무단이 국회법때문에 신경을안쓴게 아니냐』고 지적.

또 문공위의 교육법개정안과관련、의원들은『維新때 없앤 교육정책심의기구인 중앙教委의 復活이 골자인데 民正黨도원래 이에 찬성할 의사였다』며『문교부가 民正黨에 입김을넣어 지금와서는 否決시키려하니 총무단이 노력해달라』고답변.

회의를 주재한 趙重衍수석부총무는『野黨이 내놓은법안이 국민생활에 해가되거나 국가이익에반하는것도 아닌데 與黨제출법안에 비해 푸대접을 받고있다』고 불만을 토로.

後援會규모 小幅예상

금년 상반기중 독자적 後援會구성을 목표로세운 民韓黨은 그동안 지체된 입부회원확보에이어 會長團과 사무실 물색등 막바지 마무리 작업을 은밀히진행중.

柳漢烈사무총장은 18일 野黨史上 처음인 독자적 후원회의 구성문제가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고전제,『그러나 선거는다가오고 무한정國庫보조나 黨재정위원들에게 의존할수만도없는 형편이 아니잖느냐』면서 후원회구성이 대체로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示唆.

그는 후원회 구성幅에대해『회원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초반부터 욕심을 내고 싶지 않다』고 小幅규모가 될것을 비치면서『특히 회장단은 財力이 있으면서도 야당의 입장을 이해할수 있는 사람을 물색중』이라고.

국회도서관 86년 完工

국회는 총공사비 1백억원이소요되는 지하1층 지상5층의 도서관을 내년에 着工, 86년에 完工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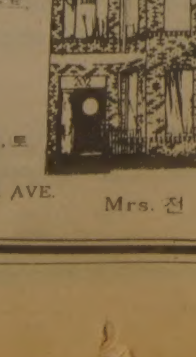
趙琮鉉국회도서관장은 18일 이미 이에대한 기본설계를 끝내고 84년부터 土木및 기초공사를, 85년에 骨造및 내부공사를, 최종연도인 86년에 치장공사를 마친뒤 開館할 방침이라며『각종 정보를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센터도설치、운영 하겠다』고밝혔다.

이대환 不動産

★드라이브 인
▲도넛숍 : 주매상 $8,500, 렌트 $2,900, 아스킹 $320,000
▲도넛숍 : 주매상 $9,500, 렌트 $3,500, 아스킹 $319,000
★Mall안에 있는 Fast Food
주매상 $10,000, 아스킹 $320,000
★아담한 Take Out 식당(6일)
주매상 $6,500, 렌트 $500, 아스킹 $160,000
★Mall안에 있는 Gift숍(크리스탈전문)
년수입 $500,000, 아스킹 $14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1,000, 리스 5+5년가능, 아스킹 $13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5,000, 리스 6+10 아스킹 $220,000
▲Plaza, Income $32만 Net, Net, Asking $3백만, D.P. $50만. (대지 5.3 에이커)
▲Plaza(시외), Income $28만9천 Net, Net, Asking $2백50만, D.P. $40만, 투자액에 대한 14% 수입 보장.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세일즈맨 신영하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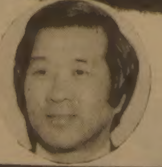
내고향메뉴

우동	$2.95	오뎅백반	$3.50
짜장면	2.95	칼국수	3.25
냉면	2.95	생선초밥	3.95
통만두	2.95	불고기백반	4.95
곰탕	2.95	갈비백반	4.95
김초밥	2.95	떡만두국	3.25
비빔밥	2.95	생선찌개백반	3.95
빈대떡	2.50	두부찌개백반	3.50
		순두부찌개백반	3.50
		된장찌개백반	3.50
		곱창전골 2인분	9.00

CHARGEX VISA
ㅁ거리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ㅁVISA 카드로도 지불됩니다.

내고향통닭집
658 1/2 BLOOR ST. W.
537-0432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의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일본의 유명가수 토론토에 오다)
고바야시사찌꼬 쇼!!
小林幸子
일자 • 1983년 6월3일(금요일)
장소 • CNE내 퀸에리자베스홀
저녁 7시 입장. 8시부터 시작
판매처 •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전화 : 698-0633)

레바논「撤軍협정」…앞으로의 課題

「시리아의 代父」클렘린…中東서 무엇을 노리는가

撤軍은 커녕 은밀히 重武裝

기회틈타「介入명분」만 모색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마침내 레바논주둔 外軍철수협정에 조인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8~12주안으로 레바논땅을 떠나게 되어있다.

베이루트포위망을 풀고 레바논 남반부를 비워주고 이스라엘군이 떠나면 레바논은 외형상 바로 1년전 침공이전상태로 돌아간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이번 협정을 성사시킨 미국은 또한부리의 外軍철수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베이루트 동북쪽 베카계곡에 포진한 시리아군 4~5만도 떠나야한다는 논리다.

레바논정부는 자기들이 조인한 外軍철수협정에 따라 시리아군도 레바논땅을 떠나줄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시리아의 대응은 냉담하다.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베이루트로 통하는 육로를 봉쇄하는 목조르기 작전으로 나왔다. 다마스커스와 베이루트를 잇는 공로는 한해 45억달러 치물량이 오고가는 레바논 경제의 동맥이다. 군대를 빼지않고 버티겠다는 시리아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레바논의 평화는 모든외국군대가 떠나야 비로소 실현된다. 적어도 1976년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레바논은명실공히 자주독립국가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좌우내전이 한창일때 레바논은 아랍평화군의 일원으로 그해 시리아 군대를 불러들였다.

그 군대는 내전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더이상 뜯어말릴 싸움이 없어져도 레바논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장비는 보강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난해 6월에는 이스라엘군대와 역시 레바논땅에서 한판승부를 벌였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군대는 어이없이 졌다.

그때 시리아군대의 패배는 곧 소련의 패배를 의미했다. 미제미사일로 무장한 이스라엘공군에의해 개전초 전폭기80여대를 잃은 시리아의 포성은 그순간부터 침묵속에 빠졌다. 그들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입으로만 도왔다.

이스라엘은 그처럼 시리아로 하여금 손을 든채로 묶어놓고 베이루트를 오래 포위한끝에 PLO를무장해제시켜 베이루트를 떠나게 했었다. 그게 82년9월의 일.

시리아군대를 불러들인건 레바논정부 자신이었다. 지금와서 나가달라는 요구도 레바논정부에서 나왔다. 시리아는 더 머물고 있을 명분을 잃었다.

그러나 결코 떠날 기세가 아니다. 시리아 군대 그리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포진한 PLO잔존세력이 물러가지않는한 이스라엘군대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틴다. 협정은 다만「종이위의 평화」만으로 공중에 떠있다.

눌러앉아 버티는 시리아도 이유는 있다. 이스라엘군대가 철수해도 남부레바논에 폭45㎞의 안전지대설치를 협정은 규정하고 있다. 또 이지역에 양국이 2년간 공동순시를 하기로 하고 베이루트에서의 이스라엘대표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保護領이 된거나 다름없고 이스라엘은 1년가까이 끌어온 레바논强占의 목표를 고스란히 달성한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러날수 없다. 이러한 시리아의 주장을 소련은 더욱 增幅시켜 이스라엘과 미국을 성토하고 있다.

레바논의 평화는 눈에보이는 시리아군대보다 눈에 보이지않는 크렘린 수뇌의 意中에 더 매달려 있는 성싶다. 협정이 공중에 뜬채 레바논은 시리아 이스라엘 양국군점령으로 양분된채 오래 표류할 여지가 많아보인다.

소련은 시리아군대가 레바논에 눌러있기를 가장절실하게 바라는 나라다. 소련은 15억달러나 들여 시리아군대를 중무장시켰다. 또 샘5신형미사일을 공급하면서 이를 조종할 소련군 4천5백명까지 시리아에 파견, 배치해놓았다. 샘5는 사정거리 2백40㎞이므로 침공해오는 이스라엘機는 물론이고 레바논너머 이스라엘내부 표적까지 강타할수있다.

이로서 시리아는 이스라엘에 도전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制空權을 위협할 수도 있고 군사력의 균형을 깰수도있다. 그러나 소련이 시리아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또한차례 중동전쟁으로몰고가리라는진단은나오지않고있다.

중동정세에관한한 크렘린 지도자들은 냉철한 현실주의자들임이 증명돼왔다. 샘5조종 소련병사가 다치는경우 높아질 미국과의 직접대결을 그들은 자초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이다. 10년전 이집트에서 외교관 기술자 조사고문관이 무더기로 축출되고 지난해 베이루트에서 PLO가 退去한후 소련은 중동에 내뻗었던 팔목이 잘렸다. 게다가 지난4월에는 이란주재외교관18명이무더기로축출당하는 受侮를 겪었다. 이란 공산당 不法化조치와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사건이 소련에준 충격은 더없이 컸을것이다. 크렘린측은 우호조약까지 맺고있는 이라크에 무기공급을 중단해가면서 호메이니치하 이란의 歡心을 사려했던것을 생각하면 顔面난타를 당한꼴이었다.

이에소련은 때늦게 이라크에 무기재공급을 개시했다는 미확인보도가있다.

지난해 베이루트 포위로 한참 긴장이 고조되었을때 브레즈네프는 사태를 방관하지않겠다는 신호를 여러차례 보냈었다.

그러나 이경고를 미국이 묵살하고 비록 평화유지군 명목이긴 하나 미국군대를 바로 그 레바논땅에 投入한 사태가 벌어져도 크렘린은 결국아무일도 하지않았다. 중동에서 소련은 사태의 고삐를 쥘힘이없다. 다만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뒤얽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副産物을 챙기는 제한된 목표 달성으로 만족할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소련은 레바논사태에 있어서도 시리아를 부추겨 충돌직전의긴장을유지케하면서 미국이 도움을 요청해오기를 기다린다. 때마침 레이건은 레바논문제해결에 소련의 참여는 필요없다고 18일 잘라 말했다. 소련의 상황과 미국의 평화구상이 교차하는 가운데 레바논국민은 얼마나 더 테러의 불안속에 살아야할까 예측하기어렵다.

【金炳武기자】

◇전초기지의 이스라엘병사 한사람이 쌍안경으로 베카계곡 저편 시리아군 진지의 동정을 살피고있다.

메아리

돈의 公道

옛 중국 齊나라에 國氏라는 부자가 있었다. 宋나라의 向氏라는 가난뱅이가 그를 찾아가 致富의 비결을 물었다.

부자인 國氏의 처음 대답은 간결했다. 「나는 훔치기를 잘한다. 처음 도둑질을 해서 1년만에 먹고 살수 있을만큼 넉넉해 졌다. 2년만에 풍요로왔고, 3년이 지나 큰 부자가 되었다」

이말을 얼핏 들은 어리석은 가난뱅이는 거리에 나서 닥치는 대로 훔쳤다. 결과야 뻔하다. 감옥에 갇히고 그나마 적은 재산마저 몰수 당했다. 출옥하자 國氏에게 달려가 따졌다.

부자의 해명은 놀랍다. 「아, 내가 훔치는 방법을 미처 일러 주지않았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는 때(계절)가 있고 땅에는 利益物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때와 땅의 利益物과, 비 구름 산과 못의 생산물을 몽땅 훔쳐다 우리 밭의 곡식을 사라나게 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육지에서 새와 짐승을, 물에서 물고기를 가져 왔다. 그러니 나의 재산은 모두 자연에서 훔쳐온 셈이다」

그의 설명은 더 차근 차근해진다.

「나는 자연의 재물을 훔쳤으나 재앙은 없었다. 그러나 金이나 보물, 곡식과 비단 같은 것은 사람이 만들고 모은 것이지 어찌 자연이 준것이겠는가…」

列子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뭇 사적이면서 깊은 교훈을 남긴다. 「致富의 公道」를 일러준다. 私心이 너무 앞서면 자칫 邪心으로 줄달음 치기 쉽다.

서양에도 「잘 먹지 못하려거든 편히 누워나 지내라」라는 속담이 전해 온다. 비록 소득은 적을 망정 안전한 생애를 누리라는 권고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B·프랭클린의 강조는 돈냄새가 너무 진하나 귀담아 들을만 하다. 가령 하루 노동으로 10실링을 벌수 있는 사람이 반나절을 게으름을 피웠다고 하자. 그리고 오락에 6펜스 밖에 쓰지 않았다 해도 그는 5실링을 스스로 버린거나 다름없다.

프랭클린은 덧붙여 「신용은 돈이다」. 돈은 번식력과 結實力을 갖고 있다. 「지불을 잘하는 사람은 萬人의 호주머니 주인」이라고 까지 말한다.

이 주장은 소에게서 기름을 짜고 사람에게서 돈을 짜내는것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蓄財의 苦役과 「지출의 順理」를 터득하게 된다.

돈에 대한 기대는 누구나 지니고살아 간다. 그것도 빠르게, 더 많게를 바란다. 복권의 매력이 그렇다. 신속한 돈의 蓄積이 따르기 때문이다. 푼돈이 재빨리 모여 巨額으로 부풀과 동시에 행운의 당첨자에게 금반 돌아간다.

超速의 致富는 복권말고는 달리 생각이 안난다. 노력의 응당한 댓가가 있을뿐이다. 그래서 투기가 사회병폐로 죄악시 당한다.

公道와 順理를 벗어난 致富는 언제고 恥部를 드러내고 만다. 상인이나 월급장이도 그렇지만, 특히 공직사회에선 「돈의 청결」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공직은 임무를 수행할 자리지 딴 목적에 이용되어선 안될 위치다. 공복의 위치에서 私腹을 채우는일은 더더욱 용납될수 없겠고 돈의 취급또한 정정당당하고 깔끔해야 옳을것이다.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경리비위는 돈의 변태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이 公道를 잃고 邪가 끼었다는 증거다.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나라재산을 늘려야할 정부투자기관이 그 씀씀이에 때가 묻었다는것은 입맛이 개운찮다.

앞서 列子 인용에서 보듯, 이 세상의 재물은 모두자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을 잠시 빌어 깨끗이 벌고 쓴다음, 다시 돌려준다는 자세를 공직자들은 가다듬어야한다.

公道를 이탈한 돈의 흐름은 재앙을 부른다. 돈은 귀하나 한편 무섭기도 하다. 인체의 깨끗한 혈액처럼, 청결한 돈의 순환이 사회를 지배해야 건강해 진다.

劉榮鍾【編輯委員】

5分間 인터뷰

民統 中央협의회 趙一文 의장

"獨立과 統一은 相通…회원정예화 힘쓸터"

『젊은시절 獨立운동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古稀를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餘力을다해 統一에 대한 노력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平和통일을위한 民間운동조직인 民族統一中央協議會2대의장에 취임한 趙一文의장 (사진)은『獨立과 統一은 相通되는 것입니다. 바꿔하면 통일이 곧 자주독립을 완성하는것이나 마찬가지지요』라며 취임의 辯을 털어놨다.

◇民統 중앙협의회의장 趙一文씨

趙의장은 젊은시절엔 光復軍에참여,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후엔 學界로나가 주로 정치학을 강의 했으며 지난2월 建國大에서 정년퇴직하기까지 말을 는 총장으로 대학생들을 지도해왔다.

이번에 對北韓민간통일운동창구인「民統」의 의장을 맡음으로써 크게 보아 세번째로 轉身한셈이다.

특히 趙의장은 3·1운동정신을이은 임시정부의 출범을 대한민국의 紀元으로 삼자는 주장에 앞장서왔다.

지난2년동안 중앙지도위원으로「民統」에참여하기도했던 趙의장은 앞으로2년의설계에대해『千寬宇의장께서 지도해온 지난2년은 民統을 창립하고 조직을 정비해온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2년동안에는 회원을 더욱 정예화하는데 힘쓰고 미국과 日本등 해외에 民統조직을심는데 노력할 방침입니다』고 조용히말했다.

조직의 정예화를 위해 그는『회원들에 대한 통일연수를 자주 갖고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양적확대는 바라지 않습니다』고 밝혔다.

그가 갖고있는 통일의 비전은『통일로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사회는 첫째가 민주주의를 해야할것이고 그다음은 복지가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사회、더잘사는 사회를 의미해야 합니다. 또한가지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통일이어야하며 전쟁과같은 무력에 의한것은 하지 않는것 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였다.

그는『일부에선 우리의 分斷이 남에의해 생긴것인만큼 남이 해줄수있는것이라고 對岸의 불보듯 하지만 이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급박한 일도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도 금물입니다』고 힘을주며 말했다.

北측의 聯邦制주장에 대한 民族史觀에 입각해 그 허점을 지적、『現狀과같은 地方自治는 몰라도 南은 南대로 北은 北대로 정부를 세우고 그위에 엉거주춤한 연방을 세우자는것은 진정한 單一民族통일이라는 목표에 부합되지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연방제안은 우리나라 전체를 赤化통일 하겠다는 의도를 감추고있음을 잊지말아야 합니다』고 좀 큰소리로 말을 끝냈다.

【河長春기자】

딱딱한 法用語 쉬운 우리말로

內務部마련 輕犯罪처벌 改正案

汚穢→"더럽힌다" 斃死→"병들어죽다"

계곡바위 이름새겨도 처벌

내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경범죄처벌법개정안은 몇가지 단속대상을추가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단속법규자체를 국민들의 일상생활주변으로 가까이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도 때늦은감은 있지만 칭찬할만한 일을했다.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키로한것은 단속 경찰관의 필요에의한 것이지만 경범죄가 국민의 일반생활에서 빚어지는 범법행위인만큼 그 적용법조문을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수있어야했다. 그러나 종전의 법률용어들은 너무어렵고 구태스러워 얼른 이해가 가지않는 문귀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더럽힌다는 말을 汚穢로 ▲병들어 죽다를 斃死로 ▲이힌다는 말을 燒煮로표기하고 있으며 또▲떼목을 用役로 ▲껍질벗기는것을 剝皮로 표기하는등 쉬운 우리말을 두고도 굳이 어려운 한자어를사용, 단속하는 사람이나 단속받는 사람이나 모두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개정작업을 추진해온 치안본부는 이법이 특히 서민층에 많이 적용되는 점을감안, 될수록 용어를 생활주변의말로 바꾸는데 중점을두었고 한글학자 韓甲洙씨의 감수까지 받으며 한자어를 모두 우리말로 바꾸었다.

따라서 개정법안은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어썼을뿐아니라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썼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문귀는 대상을 세분해 구체화함으로써 보다구체적인 단속을 유도하고 있다.

현행 법조문과 개정조문을 대조하면 제1조1항의경우 「正當한 理由없이 他人의 居住 또는 看守하지 아니하는 邸宅 建造物 船舶內에 潛伏한 者」로 돼있는것을「정당한 이유없이 다른사람이 살고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키지 아니하는 집안이나 그울타리 안이나 건조물 기차 자동차 비행기 배등의 안에 숨어들어간 사람」으로 고침으로써 말을 쉽게 바꾸었을뿐아니라 기차 자동차 비행기를 추가함으로써 변천하는 주거 건조물의 개념을 흡수,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하고 있다.

또 1조4항의 경우 「他人의 身體에 대하여 加害할 것을 共謀한 者 中 그 豫備行爲를 한 者가 있을 때에 該當 豫備行爲의 共謀者」는「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서로 꾀하여 그 예비행위를한 사람」으로 바꿈으로써 얼핏보아 대상이 누군지 알아보기힘든 문귀를 빨리 알아볼수있도록 간편하게 바꾸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의 변천에 맞추어 범죄의 대상을 추가한 것도 특징중의 하나인데 1조33항의 경우「官公署의 督促을 받으면서 煙突의 改造 修繕 기타 相當한 措置를 하지아니한 者」로 돼있는 조문을 「관공서에서 고치라는 독촉을 받으면서도 굴뚝 물받이 하수도 냉난방장치 환풍장치를 고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과거에는 밀집된 주택가에서 파손되거나 낮은굴뚝때문에 이웃주민에게 피해를주어 이를 단속대상으로 삼았지만 그동안 주거양식이발전해 냉난방장치를 한가정이나 건물 또는 환풍장치 물받이등을 여러개 설치한 건물이 늘어나 이로인한 공중의피해가 크다는 사회상을 반영하기로 한것이다.

그밖에도 1조40항 본적 주소 성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투숙또는 승선한 사람에대한 단속규정에 신분을 거짓으로 꾸미고 비행기를 탄 사람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하는 범법자가 늘어났음을 말해주고 1조24항 「타인의 가축 맷목을 풀어 놓는자」에는 타인의기계를 함부로 조작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공업시설이 늘어난 사회의 발전상을 반영하기로했다.

내무부가 이번 개정안에 추가한 규제사항은 5가지다. 지금까지 길거리에서 청객행위를한 사람은 단속규정에 명시돼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하는 편법을 써왔는데 1조10항 물품강매행위 규정에 길가에서 영업을목적으로 소란하게 손님을 부르는사람은 길거리에서 서서하거나 차안에서 밖에다대고 부르거나모두경범죄로단속하기로추가한것이다.

또 현행1조20항「公私의 儀式에 대하여 惡戱등으로 이를 妨害한者」에 대한 단속규정을 확대해「공공기관이나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사람」을 단속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기장에 소주병이나 돌멩이를 들고들어가는 사람을 처벌할수 있게했다.

이외에도 산이나 계곡에서 자연석에 자기이름등 글자를 새겨놓는 사람과 비밀댄스교습소에서 춤을 추는 사람도 댄스홀을 개장한 사람과같이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경범죄처벌법은 54년4월1일 제정된이래 63년7월, 73년2월, 80년12월등 3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키로돼있어 시행은 7월이후가 될것으로 보인다.

【裵琪哲기자】

記者의 눈

「人間」이 아니다

상습강도·강간범에게 사형이 선고된것은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1년5월서울지법남부지원은 약혼자가 지켜보는앞에서 부녀자를 윤간하는 등 32차례의강도·강간범행을한 金모피고인(21)에게 사법사상 최초로사형을 선고했었다. 당시의 판결은 80년12월 입법회의에서 상습강도범에게 최고사형을 선고할수있도록 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첫 적용한 사례로 법조계내에서도「획기적인 판결」이라는 견해와「충격적인 판결」이라는 견해가 엇갈렸었다.

상습강간·강도등 고질적인 사회악에 대해 일벌백계의 철퇴를 내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사회정화적 차원의 단호한 결의를 반영했다는 것이 이 판결을 지지하는 근거였고 반대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법조인들의 의견은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싯점에서 이에 역행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다시 사형선고를 내린 재판부도『피고인들의 흉악성에 대한 분노와 과연 극형을 선고해야 하느냐는 갈등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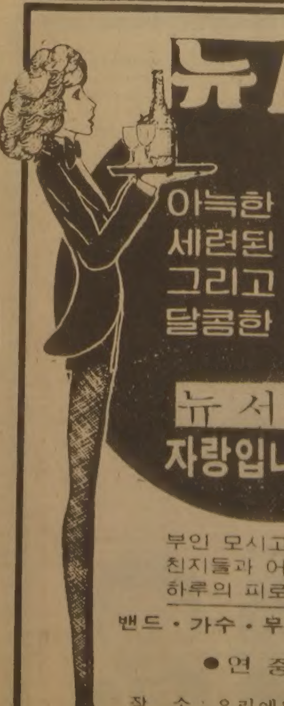
사실 이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도저히 기사화할수없는 부분이 많을 정도로 흉악하기 짝이없다. 임신5개월된 딸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데도 이를 뿌리쳤고 사정하는 여대생에게는 전기다리미를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또 금품을 털지못한 집에서는『재수없으니 모두 죽이고가자』는 말을서슴없이 내뱉었던것으로 밝혀졌다.「육체적 살인보다 더 죄질이 무거운 정신적살인죄」라는 재판부의 단죄에 누구나고개를 끄덕이지 않을수 없는것도 이때문이다. 이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도 태연히 죄상을 털어 놓았고 사상적 확신범도동요의 빛을 보이게 마련이라는 사형 구형에도전혀 놀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포기한사람들이라는 재판부의 중형선고이유는 바로 이들이「인간」이 아니라「獸性」에 가득찬 비인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태여 이날 재판결과를 두고 사형폐지론을이용하거나 반대로 性의해방풍조속에서도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강간범죄는 중하게 처벌하는서구의 예를 들먹이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들과 같은「非人間」들이 생성할수있었던 현대사회풍토가 언제까지 계속될것인가를 생각하며 우울할수 밖에 없었다.

【姜秉宗사회부기자】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
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우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 (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娑婆에서 佛心을 전하며 山中에서 佛心을 깨우친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날

千년禪門의 도량은 無明의 늪을 벗은듯

小白靈山 曦陽山의 曹溪宗 특별수도원 鳳巖寺를 찾아

구름도 쉬어넘는다는 문경새재(聞慶鳥嶺)를 미처 曦陽山(해발9백98m)자락에 불교수도장으로 유명한 鳳巖寺가 누워있다. 소백산맥의 靈山 희양산에는 구름대신 불법이 머물러 등불이 되어온지 천년세월이 흘렀다.

일반觀光客 通禁

신라때 九山禪門의 하나요 역대 善知識이 다수 수행득도한 봉암사(경북 聞慶郡加恩邑院北里)는 천년을 이어온 수행도량답게 자연풍광이 뛰어나다. 나무숲을거쳐 불어오는 소슬바람과 20여리 계곡을 흘러내리는 물소리 하나에도 저 심연에서 소리치는 착하고 아름다움을 聖化하는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듯하다.

일반관광객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山門을 철저히 막아놓은 도량안에서는 스님들의 독경과 가도소리만 낭랑히 들려올 뿐 이름모를 산새들의 재잘거리는소리로 가득하다. 어느 仙境이 따로 없으리란 생각이 든다. 다람쥐들이 눈에 띄게 많은 사람을보아도 달아나질않는다.

사찰경내를 빠져 산으로 오르는 잣나무숲 오솔길에는 솔잎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마치 태고의 신비까지 느껴진다. 빈병과 비닐조각하나없는 계곡물은 그지없이 맑고 손을 담그니 시릴 정도다.

봉암사가 조계종단에서 특별수도원으로 지정된지 부처님오신날로꼭 1년이 된다. 작년 5월20일전까지만해도 봉암사 경내는 여느 사찰과 다를게 없었다. 대도시에서 몰려드는 등산객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가하면 유흥객들은 깨진병과음식물찌꺼기를 마구 버렸다. 분재목과 수석을 채취해가기 일쑤이고 덫이나 그물로 산짐승을 밀수렵하는 일이 예사로 행해졌다고 한다.

악취가 풍기던 산골이 불과 1년만에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는것은 여간 다행스럽지가 않다.

봉암사스님들은 전국사찰이 관광지가되고 훼손되는것을 어떻게해서든지 막아야한다고 역설한다.

우선 천년도량만이라도 禪修客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고 걸망태지닌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로 가꾸게된 동기가 여기에있는 것이다. 曦陽山선백을 연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봉암사수도원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고있는 사람은 바로 조계종宗正。白蓮庵에서 은거하고 있는 退翁 性徹스님은『그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는가。내 불원간 그 도량에 가보리란』고 크게 환영했다고한다。팔공산把溪寺에서 8년간 長坐不臥를 했고 최근 12년간은 가야산 울안을 떠나본적이 없는 宗正이 曦陽山계곡을 찾아보겠다는 발언은 수행자들의 가슴을 설레게할 만큼 힘이 된것이사실이다.

60명이 晝夜精進

性徹 큰스님 자신이 6·25전에 한3년을 봉암사에서 수행한 적이 있고 똑같은 시기는 아니라도 靑潭 香谷 滋雲 日陀惠庵스님등 선맥을 잇는 굵직한 스님네들이 이곳을 거쳐갔다는 자부는 결코작은 것이 아니다.

봉암사 수도원에서 현재 주야로 용맹정진하고 있는 스님은 모두 60명。선방에서 최소한3년이상 연마한 스님으로 못을 박아놓았다。그러나 전국방방곡곡에서 禪修희망자들이 구여구역 모여들어 한철마다 30·40명은 찾아왔다가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좁은 禪室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해낼수없다는데도 아예극락전에 엎드려 머물러 있게해달라고 철야기도를하는 스님이 많다고 한 스님이 귀띔해준다.

일단 수도원에 들어온 스님들은 철저한 참선수도를 하게된다. 다른 사찰에서는 冬安居 夏安居라고해서 한철석달간 結制한뒤 그다음 석달은 쉬게돼있으나 여기서는 解制기간 중에도 계속용맹정진하고있다。일년에 한두번 보름정도만 放禪이라고해서 좌선을 풀고 萬行에 돌입하므로따로해제기간이 없는셈이다。

참선이라면 思惟를 통한 면벽수도만을 생각하나 수도방법은 일상생활이바로 공부랄수 있다。최소한하루 3시간씩 채전을 가꾸고 산림을 돌본다。밀대모자를 푹눌러쓰고 승복을 벗어버린채 영낙없는 농부그대로다。

이같은 노동을통해서 부처님이가르친 말씀(言)행(行)뜻(心)을 고행으로 수련함으로써 탐욕에 얽힌 無明의 굳은 늪에서 헤어날수 있다。

사랑하고 미워하다 급기야는 사라져버릴 저生老病死의 무상한 인과사슬을 풀고 고뇌에 찌든 심신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분수를 알아 자족하는 생활을해야한다。

自給自足이 원칙

그래서 봉암사에서는 자급자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山門을 폐쇄하여 관광객 등산객 유흥객의 출입을 막았기때문에 한푼의 불전도 들어오질 않는다。절안에서 스님들이 일하여 얻은소득으로 끼니를 충당하고 있는것이다。절안의 채전에는 당근 양배추 딸기 토마토 땅콩을 심어 스님들의 부식은 넉넉하다。그러나 쌀농사는 짓지못하므로 밖에 의존할수밖에 없지만 종단방침에 따라 탁발은 당초부터 생각지도 않고 있다。부지런히 땀흘려 양식을 거두고 낭비 않고 검소하게 생활함으로써 부처님의 본디 모습을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방은 스님들만의 전용물로 그치지않고 생활의 참모습으로 드러나야한다는게 봉암사 스님들의 뜻이다。특별수도원으로 지정되기 10여년전에 이미 옷나무 8천그루와 잣나무 10만그루를 심어놓았다。요즘들어서는 잣나무에서 잣을 따기 시작했고 옷나무 수확으로 근근 쌀을 밖에서 들여오고있다고한다。

수도원에서 계행을 지킴으로써오늘의 불교중흥을 찾고있는 이들 스님들은 막상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려한다。다만 토굴에사는중이라는 말을 쓰고있다。주지인 道詵스님이 며칠전에 암자로올라가고 지금은 法蓮스님이 주지대행을맡고 있는데 이를 都監이라고 불렀다。

도감스님은 조실 西庵스님이 일체의 형식을 싫어하는 까닭에 오로지 無我萬善을 실천하는 정신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山에 묻혀 한길을 가는데 무슨 말이 있어야 하는냐?』는 것이 평생을 禪修로 일관해온 조실스님(68세)의 대답이라는 것이다。

대지연과의 혼연일체와 眞我의 탄생만을 바라보고 꿈입없는 수행이 있다는 뜻인것같다。

高德大僧의 善知識 산실

性徹스님도"나도한번 가보리라"감탄한風光

淨化 1년에 仙境 되찾아

2百年뒤를 위해

수도원은 지금의 좁은 禪室을 넓히는일도 급하지만 無門關을 새로 지어야 하고 加恩邑내에 포교당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無門關은 그안에 들어가 운둔을 할수없는 폐쇄방법을 버리고 山門안에서는 자유롭게 일하면서 좌선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주민들을 상대로한 포교당역시 수행에서 깨달은 自性을 도량에만 머물러있지 않게 펼쳐나갈 방침이다。부처님의 고행을 수도자들이 직접 체험하여 불교의 참된 모습을 속세에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香木을 2백년뒤에 쓰기위해바다속에 넣어두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스님은 얘기한다。

入山客의 출입을 막고 고된 수행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먼훗날을 바라보고 香木을 바다속에 넣는 그런 마음, 다시말해 미래를 바라보는마음이라 여겨진다。

【聞慶=李忠雨기자】

新羅九山禪門의 발상지…千百年前창건

鳳巖寺 …… 소백산맥 가운데 영봉으로 꼽히는 曦陽山은 30리가 넘는 울창한 산림과 계곡을 품고있다。2천4백50여 정보에 달한 봉암골은 본디 신라 말沈思이라는 사람의소유였으나 法德이 높은 智證大師에게 희사하여 禪修道場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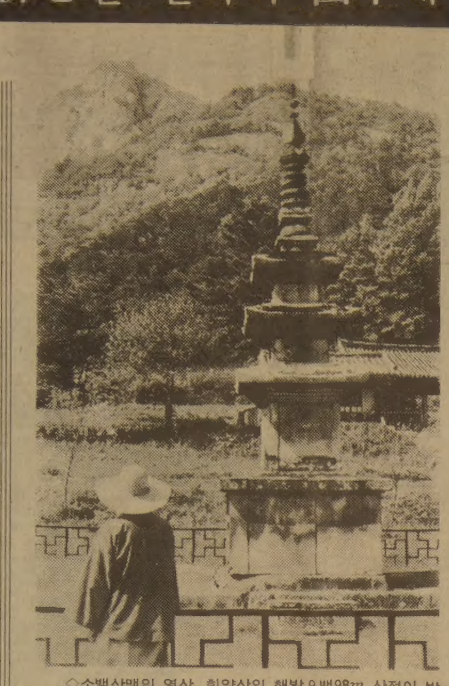
봉암사가 창건된해는 憲康王5년(서기879년)이니 지금으로부터 1천1백년하고도 1백4년전이다。

한국불교의 수행이념이랄 수 있는 禪은 신라의 九山禪門의 발상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長興 寶林寺▲南原 實相寺▲谷城 太安寺▲陝川 崛山寺▲昌原 鳳林寺▲保寧 聖住寺▲寧越 興寧寺▲海州 廣照寺그리고▲聞慶 鳳巖寺등 九山禪門으로부터 曹溪山 松廣寺의 개산을 거쳐 禪風이 진작해나왔다。

禪은 본래 영산회상에서 가섭(迦葉)의 염화시중미소가 그 뿌리。마음의 정체를 밝혀 眞我를 추적하여 직관적인 수행방법을 통해 覺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오늘의 비구종단이 장삼을 입도록하고 신도들로부터 앉아서 절을 받는 법도가 모두 봉암사 선실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봉암사 경내에는▲智證大師 寂照塔과 그碑▲三層石塔▲靜眞大師圓悟塔과 그碑등 5기의 보물이 있고 극락전은 高麗때 건축물로 귀중문화재에 속한다。



◇소백산맥의 영산 희양산의 해발 9백98m 산정이 바라보이는 봉암사경내。사진은 보물로 지정돼 있는 3층석탑。

◇수행도량안에서 밀대모자를 눌러쓰고 농부처럼 일하며 양식을 자급자족하며 수행력을 쌓고있는 스님들。

都心의 解脫

서울城北洞 三仙포교원

쉴 새없이 버스들이다니고 행인들이 오가는 서울城北區 東小門洞3가31번지 시끄러운 큰 길가에 앉은 2층 양옥 건물。이앞을 매일 지나가는 뭇 행인들조차 이건물이 비구니들이 살고있는절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못하는 수가많다。이건물은 여스님들이 이끄는 三仙포교원으로,눈에 잘띄지않는 조그마한 표지판 하나말고는 도무지 절간같지않지만,이 절처럼 애깃거리가 풍부한 곳도 다시없다。

三仙포교원은 佛子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호소하는 새로운 포교스타일을 갖춘「현대화된 절」로 알려져 있다。번잡한 都心 한복판에 앉은 절답게「佛敎의 日常化」를 현판처럼 내걸어,깊은 山寺로만 높이 올라가는 불교를 世間가운데로 끌어들이는 한 役을 하고있다。이 포교원은 珠林僧伽學院을 겸해 일반 포교와 비구니들의 교육을 함께 맡는다。이처럼 포교사업과 승가학교를 나란히 해나가는 절은 서울에선 이곳 한 군데뿐이다。

상주하는 스님은 원장 志光스님、講師 鈴雨、智運、玄一스님등 여스님4명。현재 40명의 學人비구니들과 오백을 헤아리는 신도들이 강의를 받고있다。이들 學人스님들이 배우고있는 교과과정도 다른 승가학교의 교과과정과 좀 다르다。

비구니들의 1人1技 교육을실시해 다른 학교 교과과정에선 불수없는 영어、타이핑、꽃꽂이、피아노등의 과목이 들어있다。이들중엔 외부에서 꽃꽂이사범자격을 따낸 스님이 2명이나 된다。

學人비구니 40명은 서울 근교의 각 사찰에서、새벽예불을 끝내고 모여든 6시30분부터 시작해 4시간씩 공부한다。

경전과 영어과목에선 무거운 분량의 숙제를 받기도 한다。신도들도 화요일마다 모여「法華經」등 경전 강의를 듣는다。이제까지 강의에 빠짐없이 참가한 신도 金鍾順씨는『항상 쫓기고,불안하고,편안치 못한 나날을 살기 쉬운 도시인들에겐 손 쉽게 찾아가 어지러운 마음을 쉬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가까운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이 곳 신도들은 법회나 모임때마다 讚佛歌를 많이 부르고、식사하기전『부처님께도 감사를 드리는』念佛을 하며 식사하는 식으로 佛敎儀式을 생활에 응용하는경우가 많다。

이 절의 신도들은『불교도 산에서만 머물지 말고 도시 복판으로 파고들어 동네가운데 심어가야 할때』라는 견해를 갖고있다。

三仙포교원과 신도 1천3백여명이 펴고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포교는 불교쪽에서 먼저 世間을 향해 손을 뻗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이들은『스님도 이런걸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피아노를 치고、그림을 그리며 또 연극을 공연해 불법을 편다。원장 志光스님(50)은 각종 찬불가들을 작곡·작사하고、신도들과 학인스님들이 노래할때마다 피아노를 두드려 반주해 준다。그는『불교가 대중가운데 파고들려면 전통만을 고집해선 아니된다』고 말하고『비록 서양악기라 할지라도 손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악기를 쓰는 편이 불교를 현대감각에 맞게 살려나갈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이들 스님 40명은 81년에 비구니합창단을 조직、해마다 발표회를 열어 음악을 통해 포교하고 자신들이 직접劇을 써서 출연하는 연극도 꾸민다。81년 東大 대강당에서 이들 비구니들이 연출하고 출연한 불교마당극「욕심때문에 목이 매달린 사나이」는 화제작이었다。이들은 자선기금이 필요할 때는 각자의 소질을 살려 만든 禪書畵작품과 수공예품등으로 바자를 열고、참기름장사와 깻잎장사까지 한다。이런 바자수익금으로 지난 2월、작은 木鐸을 1천3백개나 제작해 明洞거리로 나가 영업용 택시 기사들에게 나눠주었다。

목탁은 안전운전을 기원하는뜻을 담은 것이었지만、차가 과속으로 달릴때 낭랑하게 울리는목탁소리로 과속을 깨우치고、격무로 짜증이나 난폭운전을 할때 목탁소리를 佛音으로듣고 짜증을풀어 달라는 의미도 있었다。이날 택시기사들에게 목탁을 나눠준다는 예고가 방송에 나가 밀려든택시기사들로 목탁이 1시간만에동이나 그냥 되돌아간 기사들이 많았다고 한다。

여스님이 英語·꽃꽂이에 연극까지

피아노맞춰 佛讚歌…現代化에 앞장

이 포교원 스님들과 신도들은 대부분의 사찰에서 하고 있는 放生법회를 하지 않는다。방생법회시기만 되면 상인들이 일부러 물고기를 더많이 잡아서 팔고,佛子들이 사서 물에 넣어준 물고기를 다시 잡아 팔아 방생때마다 물고기들이 오히려 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과감하게 없앴다。그러나 放生은 본래 불교의 아름다운 전통이기때문에 그 전통의 의미를 살리기위해 방생에 들 비용을 모아 東小門洞파출소에서 운영하는 구두닦이소년들의 야간학교에 내놓곤 한다。

志光스님은『佛法』은 바로 다름아닌「生活하는 法」」이라고말하고『그렇기때문에「불교」와「생활」은 한 몸체여서 둘로 나눌수가 없는것』이라고 말한다。불교의 正體는『불교의 생활화이고、현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일러주는것』이라고 풀이하는 그는『이때문에 三仙포교원여스님들과 신도들은 경전에다 생활을 맞추기보다 생활에 경전을 가져다 맞추려는 경향』이라고설명한다。그러나 그는『우리들 모두가 합창 연극 이웃돕기등 여러가지로 포교를 하지만 역시 제일 좋아하는 것은「부처님말씀」이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공부할 때 가장 진지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三仙포교원의 건물은 셋집으로 지하철 공사로 헐리게돼 이사할 채비를 하고 있다。東仙洞에 대지 3백평을 마련해 지난4월 첫 삽질을 했다。새로 지을건물은 외관을 慶州芬皇寺 3층탑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20世紀文化財」가 되게 세울 예정이며 법당은 영세민을 위한 집회장소나 결혼예식장으로 개방할 수 있게 설계하고 있다。이 곳 스님들은 요즘 새로 마련할건물 기금을 모으기위해 애태우고 있다。

【禹桂淑기자】

◇비구니僧伽 三仙포교원은 生活의 佛敎化를 목적으로 불교연극, 이웃돕기, 합창등 새로운 스타일의 포교방법을 개발하고 있다。(장삼가사를 입은 志光스님이 法堂안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讚佛歌지도를 하고있다)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449-8446, 449-8645, 445-1516

금주의 새 리스팅

●버라이어티 스토아

◉Variety Store
(1)주매상 9,000 asking 110,000+stock(이헌영) D/P 75,000
(2)주매상 14,500 asking 200,000+stock(이헌영)
(3)주매상 14,000 asking 200,000+stock(이헌영)
(4)주매상 9,000 asking 70,000+stock(이헌영)
(5)주매상 14,000 asking 250,000(황용현)

◉Tuck Shop
(1)Good Potential, Subway, Condom근처 askig 35,900(유웅복)
(2)미시사가에 있는 주매상 2,500 askig 25,000 (좋은 lease와 rent 조건)(임윤식)

◉Gift Shop
(1)big mall에 들어있는 asking 159,000(이헌영)
(2)연매상 473,000 asking 159,000(이헌영)

◉Variety & Grocery Store
(1)주매상 8,000 asking 93,000(황용현)
(2)주매상 9,000(브램톤에 있음) 리스4년 포스트오피스 있음, 렌트 900,00(임윤식)

◉Discount Store
(1)주매상 6,500(주6일및 좋은 렌트)(토론토)(임윤식)
(2)주매상 5,700(주6일) asking 79,000(임윤식) (시외 1시간거리)(Store의 건물까지도 매입가능)

◉Dry Cleaner
(1)주매상 $1,800, Asking $69,000(황용현)
(2)아파트밀집지역 프랜트와 함께 연매상 $240,000, Asking $189,000(유웅복)

◉Donut Shop
(1)주매상 6,500 asking 275,000 50% D/P Good-location lease 10/10years(유웅복)
(2)주매상 4,000 asking 117,000(유웅복)
(3)Donut 및 햄버거 Shop 주매상 6,000+Video인컴 4,000(월) 보장 asking 215,000, D/P 50,000(황용현)

◉VIDEO ARCADE(Plaza내에 있는 좋은 조건) 28개 Game 기계 asking 85,000(유웅복)

◉Fish & Chips(downtown shopping centre에 있는) 주매상 $8,000 asking 279,000(황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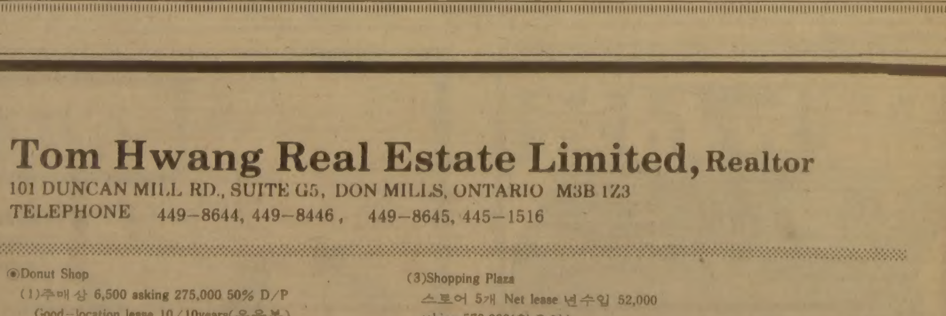
◉투자용건물
(1)프라자(4개의 스토어를 갖인) asking 525,000 D/P 120,000(이헌영)
(2)Chicken & Mac's가 있는 Plaza asking 625,000 D/P 200,000(이헌영)
(3)Shopping Plaza 스토어 5개 Net lease 년수입 52,000 asking 570,000(황용현)
(4)Shopping Plaza 년수입 300,000 asking 3,000,000(황용현)
(5)2 Stores+2 Apts Corner Building Near Eaton Centre 80,000 다운 asking $279,000(황용현)
(6)버라이어티와 그로서리가게 딸린 건물, 주매상 4천5백, Appraisal 가격으로 함, 다운 $35,000(유웅복)
(7)버라이어티스토아 딸린 건물, 주매상 $4,000, Asking $115,000, 다운 $77,000(유웅복)

주택상담실 설치

그동안 저희 회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저희는 많은 분들의 요구에 의해 주택상담실을 설치하였읍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파실 계획이시거나 새 주택을 마련코저 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상담에 기꺼이 응하고저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좋은 조건의 모게지 알선
(2)가옥의 가치 평가
(3)가옥의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
(4)가옥의 투자 상담
(5)가옥 구입시 필요한 제반 지식 제공



황용현 (R)286-1548 | 이헌영 (R)686-0207 | 강정숙 (R)244-8918 | 임윤식 (R)636-7950 | 임분옥 533-9061 | 유웅복 (R)44

국민학교 點數통지 없앤다

문교부指示 "席次도 폐지·5단계評點만 하도록"

實習비중 높여… 체육 90%까지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성적평가와 가정통지제가 대폭 바뀐다。

문교부는 18일 점수가 매겨진 시험지를 가정에 보내 부모의 도장을 받아오게하거나 성적통지표에 과목별 점수와 석차를적어 통지하는것이 비교육적이고 과외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는다고 판단、이를 막도록 전국시·도교위에 시달했다。

현재 국민학교의 성적평가는 이른바 「목표지향평가」인 절대평가로서 「수·우·미·양·가」의 5단계 평점만으로 하도록되어있으나 대부분의 국민학교에서 어린이들의 5단계평점을 산출한다는 구실로 수시로 시험지에의한 과목별 학력평가를 실시、그결과(점수가 매겨진 시험지)를 가정에 발송해왔다。

이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성적이 자연스럽게 공개됐으며 이때문에 어린이들사이에 「1등과 꼴찌」의 차등을 갖게해 경쟁심과 열등감을 조장하는 폐단을가져왔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학교어린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용돈을 타내는 구실과 이웃집 어린이들과비교해 수치심을 심어주었던『백점맞았다』『빵점맞았다』는말과 1등과꼴등이란말은 우리의 교육풍토에서 점차사라지게됐다。

그대신 일선 국민학교는 현재 매학기말 가정에보내는 성적통지표에 매겨지는 5단계 평점만을통해 어린이들의 성적을 통지해야한다。

문교부는 한편 종래 필기시험(이론)에 중점을 두던 평가방법을 개선、실기와 실험등에도 평가치를 대폭 늘리도록하고 필기시험의 출제원칙도 현재의객관식 중심에서 주관식중심으로 바꾸도록 일선학교에 장학지도를 펴나가라고 시달했는데 이같은 평가방법의 개선은 국민학교때부터 어린이들로 하여금 객관식 단답형에서 비롯되는 암기위주의 단순사고 폐해에서 벗어나 고등정신능력을 배양케하고 아울러 탐구학습의 태도를 갖도록하기위해 취해진것이다。

이에따라 국민학교의 9개교과목중 국어·산수·사회를제외한 모든과목은 50~90%까지 실험실기 능력이 총점에평가되도록 했는데 문교부가 예시한 실험실습의 점수분포를 과목별로보면 ▲도덕 70%▲자연 60%▲체육 90%▲음악 80%▲미술 90%▲실과 50%등이다。

한편 교육 전문가는『이같은 제도의 개선으로 어린이가 밝고건전하게 자라는데는 도움을 주겠으나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성적이 공개되지않고、교사들의 주관에의한 성적평가비중도 커져 자칫하면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李鍾九기자】

◇金浦공항 떠나는「中共熱氣」 피납14일만에 北京으로 되돌아가는중공민항소속 B296트라이던트여객기. 한동안 이나라를 떠들썩하게했던 中共熱氣가 공항을 떠난 날이기도했다

"無事귀환협조에 感謝"

피납中共機 어제離陸 남은건 납치범 6명뿐

피납중공여객기가 불시착 14일만인 18일상오 北京으로 돌아갔다。

중공여객기는 15일 金浦공항으로 옮겨 재정비를끝낸뒤 이날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王水昌통신사(41)、白景祥기장등 10명의 승무원、교섭대표단중 잔류했던 의사 劉宏씨、통역 李克利씨등 13명을 태우고 상오10시 金浦공항을 떠났다。

이에따라 그동안 갖가지 화제를 뿌렸던「中共 해프닝」도 막을 내렸고 6명의 납치범들만 남아있게됐다。

이날 귀향한 피납기는 2대의 우리공군기가 좌우에서 안내비행을 하는가운데 金浦-水原-群山-光州-濟州상공을거쳐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을 빠져나간 다음 닉스루트를따라 上海상공을 통과、北京으로 직행했다。

피납기인수요원과 탑승자들은 金浦공항 출발에앞서 한국에서의 따뜻한 대접에대해 깊은 감사의뜻을 표했고 金徹浴교통부 항공국장등의 전송을받으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에앞서 중공승무원들은 이날상오8시20분 숙소인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공항에 도착、출국수속을한후 간단한 보안검색에이어 착륙허가서를 반납했다。

부상자 王씨는 환자복에 샌들차림으로 9시20분 국군통합병원 앰뷸런스에 실려 피납기트랩앞에 도착、그동안 치료를맡았던 군의관 金在變중령(39)과 간호장교 朴鍾榮대위의 부축을받으며 트랩을올랐는데 비행기출입문을 들어가기전 한동안 손을 흔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륙에 앞서 劉遵榮중공민항부국장(52)은 트랩아래서 보도진들에게『관계기관과 대한항공의협조로 무사히 고국으로 귀환하는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인삿말을 영어와 중국어로했다。

"13시16분 北京着" 劉부국장 電文

劉遵榮 중공민항부국장은 18일하오1시30분 北京공항 운항실에서 金浦공항 운항실로『13시16분 北京안착』이라는 전문을 2차례에걸쳐 보내왔다。

"소 45%가 肝蛭虫감염"

生肝 그냥먹으면 위험"

가축위생연구소

전국에서 사육중인 소가운데 간질충(肝蛭虫)에 감염된 소가 45%정도나돼 소의 생간을 날로먹을경우 인체에 감염될우려도 그만큼 클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에따르면 전국의 소가운데 44·9%가 간질충에 감염됐다는것。

이 연구소는 지난80년부터 3년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80개 市·郡도축장에서 도살된 소1천39마리의 간을대상으로 감염여부를 조사했는데 江原지방이 2백46마리중 1백38마리가 나타나 58·5%로 감염률이 가장높았고 嶺南지방이 47% 경기지방은 41·2%였다。 품종별로는 한우가 46·9%로 가장많았고 젖소가 42% 육우등 잡종우가 31·5%였다。

이간질충은 소의 간에서 기식하고있어 사람이 생간을 그대로 먹을때 인체에 들어오지만 소의간에서 유충단계로있을때 인체로 침투하면 사람의간에 들어가살면서 최소4㎝이상으로 자라 간조직을 파괴하거나 담도를막아 황달·복통을일으키기때문에 수술까지 해야하는 위험이 많다。

前順天署長에 징역 10년求刑

서울지검은18일 경찰서 청사 신축공사를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뇌물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順天경찰서장 崔容鉄(54) 陳鎔(55)피고인등2명에게징역10년에 추징금 3천만원과、징역5년에 추징금1천만원을 각각구형했다。

날씨 곤두박질 大關嶺은 零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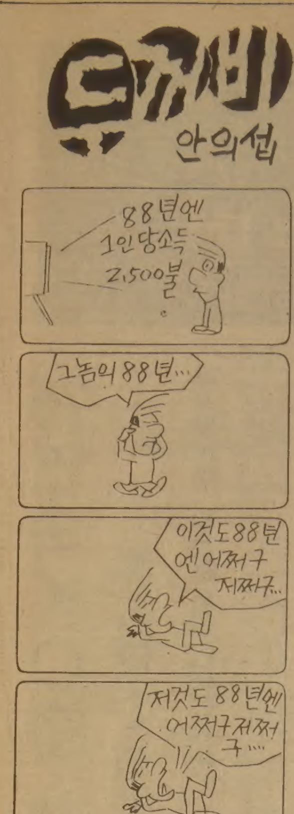
한동안계속되던 초여름 날씨가 갑자기 떨어져 18일엔 大關嶺지방이 영하 0·3도를 기록한것을 비롯 전국적으로 기온이 5~7도나 급강하했다。

이날 상오의 최저기온은 서울지방이9·9、江陵6·3、春川6·8、光州9·8、大邱6·9、釜山9·5도였으며 낮최고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초여름속의 가을날씨였다。

중앙기상대는 기온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東海에서 일시적으로 냉수대가 형성된데다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에서 찬공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5行뉴스

尹誠敏국방장관은 18일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예비군훈련을 오는6월20일이후로 연기토록하고 농번기동안 작전에 지장이 없는한 병력과 장비를 동원、농가일손돕기에 나서라고 각군총장에게 지시했다。



보사부、「전염병예방법」개정안마련

定期身檢에「性病」포함

공무원·企業體 檢診기피 고용주 罰金刑

보사부는 성병의 강력퇴치를 위해 정기검진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진기피자는 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기업체직원등의 정기신체검사항목에도 성병검진을 추가하기로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마련、17일하오 민정당과 협의를 마쳤는데 이에 의하면 성병검진 기피자를 고용한업주는 최고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개정안이 오는 6월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성병검진규칙도 고쳐 검진대상을 현행유흥음식점 종사자、접대부、댄서등 9만명외에 다방、숙박업소、인삼찻집등의종사자및 입욕보조자등 모두 10만9천명을 검진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84년부터 공무원과 16인이상 고용사업장종사자의 정기신체검사때도 혈청검사를통해 매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소아마비 홍역등의 전염병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하고 비교적발생률이낮은 장티푸스와 천연두는 임시예방접종대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넷脫出 1명귀환 3명失踪

【長項】17일상오 10시20분께 충남舒川郡 長項邑 松林洞 유부도 정신수련원(원장 崔판규·53)에 수용돼있던 정신질환자 李경철(31·仁川市南區) 임상률(31·충남 大田市中區)조영현(42·충남瑞山郡瑞山邑)노희화씨(42·충남舒川郡長項邑)등 4명이 해상탈주하는것을舒川경찰서 유부도파견 경찰관 신선호순경이발견、제지했으나 노씨만섬으로 돌아오고 李씨등3명은 실종됐다。

신순경에 의하면 이날상오 섬주변을 순찰하고 있던중 바다에서 李씨등 4명이 長項邑쪽으로 헤엄쳐가고있어 돌아오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노씨만 되돌아왔을뿐 나머지3명은 그대로 헤엄을 치며 달아났는데 18일 상오10시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있다。

면적 0·5㎢에 18가구와 정신수련원이 있는 유부도는 長項邑에서 11㎞떨어져있는데 현재 수련원에는 남자 89명과 여자 30명등 1백19명의 정신 질환자가 수용돼있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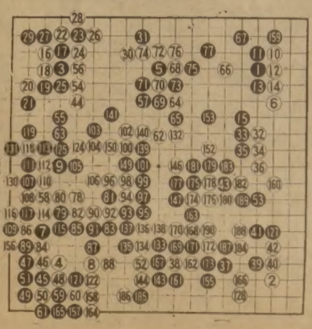
3살아기 냉장고서 窒息死

【仁川】17일하오6시께인천시東區松峴4洞66 박흥식씨(30)집 안방에서 박씨의장남 재연군(3)이 2백ℓ짜리 냉장고안에 들어가 질식해 숨져있는것을 어머니 최정희씨(30·여)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최씨에 의하면 겨우내사용하지않던 냉장고를 이날 다시 사용하기위해 내부청소를하고 문을 열어놓은채 재연군을 잠재운후 시장에 갔다와보니재연군이보이지 않고열어놓은냉장고문이닫혀있어열어보니재연군이숨져있었다는것이다。【聯】

방위병이 눈찔러 中學生숨지게

【全州】전북 茂朱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같은 마을 중학생을 숨지게 한 방위병 조익성씨(22·전북 茂朱郡 赤裳面 北倉里88)를 상해치사혐의로 검거、군수사기관에 넘겼다。【聯】



◇제38기本因坊戰7번승부제1국總譜(1~190) 白 本因坊 趙治勳 9단(1승) 黑 도전자 林海峯9단(1패) (黑5집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

趙治勳 불계승 本因坊 제1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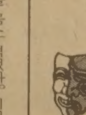
【東京=宋孝彬특파원】趙治勳本因坊은 17일 하오9시38분 제38기 本因坊(每日新聞주최) 도전 7번기제1국에서 도전자 林海峯9단을 격파、서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일본 바둑계의 3대타이틀(棋聖·名人·本因坊)을 동시에 석권하고있는趙本因坊은16·17양일간 요꼬하마의 리치호텔에서 열린 제1국에서 1백90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어 7번기의 첫승을따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白을쥔 趙本因坊은 제한시간 9시간가운데 1분을 남겼으며 黑의 林9단은 3분을 남겼다。 제2국은 오는25·26양일간 히로시마市에서 개최될예정。

恨을 지킨다

「산악警察」일원이된 李홍기순경

仁壽峰참사 계기… 12명으로 出發



산악경찰이 탄생했다。경찰은 19일하오3시 수많은 젊음의 恨이 서린 仁壽峰이 올려다보이는 道詵寺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산악사고 예방및 구조활동에 나선다。대원은 모두 12명。

발대식을 앞두고 그 준비에 바쁜 李홍기순경(28·사진)은 한국최초의 산악경찰의 일원이 된 긍지에 차있다。『산악경찰탄생은 한국경찰사와 산악사에 획기적인 일이 아니냐』며 구리빛 얼굴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李순경은 서울北部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지난4월초 대학생7명의 「젊음」이 어이없이 진 仁壽峰참변을 몸소 겪었다。이때 산악경찰이 창설되면 자원해야겠다고 다시금 결심했다。

80년 공채시험을거쳐 경찰관이 된 그의 고향은 산골인 강원도平昌。어려서부터 산을 좋아했고 그뒤엔 대한산악회회원으로 산에 자주 오르곤했다。

그는 산악경찰요원으로 선발된후 2주일동안 고된 전문훈련을 받았다。한국등산학교에서 자일매듭법、구조장비사용법、자일다루기、로프하강술등 광범위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다시 다지고 道峰山과 北漢山일원의 70~80도 난코스 30여곳을 누비며 얽어내리기、로프를이용한 들것후송、응급처치법、환자후송과 암벽을 오르내리는 개인기를 갈고 닦았다。

본격훈련이라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않고 산에 오르던 젊은이들을 떠올리고『흘리는 땀한방울이 한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같다』고 생각하니 힘이 저절로 솟는것 같았다。

우리나라 산악경찰은 이제겨우 12명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선진산악국에선 보편화돼고 많은 활약을 하고있다。 우리나라도 산악사고가 날때마다 산악경찰의필요성이 강조됐지만 미루어오다가 지난번 仁壽峰참사가 하나의 전기가 됐다。

『산악경찰이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기위해 창설됐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해요。 장비를갖추고 겸허한 자세로 산에오르면 산악경찰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구조보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뒷바라지나 하는 산악경찰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宋大洙기자】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Continental Console CE-7N
Continental Console CX-4
Studio UST-7
Professional KS-3F
Professional KL-502
Traditional 803-T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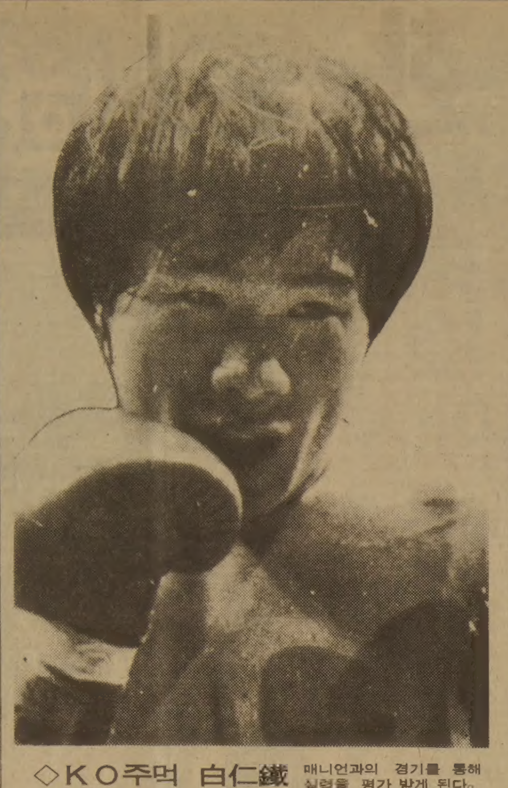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진짜鐵拳? 白仁鐵주먹

26연속KO勝 美원정…시험臺에

黑人왼손強拳 신·매니언과 내일對決

美프로모터 "잘하면 챔피언도전 주선"



◇KO주먹 白仁鐵 매니언과의 경기를 통해 실력을 평가 받게 된다.

白仁鐵의 KO주먹이 美國에서 시험 받는다. 프로복싱주니어미들급 동양·태평양(OPBF)챔피언겸WBA동급2위 白仁鐵(23)이 20일상오(한국시간)애틀랜틱시티에서 미국 흑인복서 신·매니언(26)을 상대로 10라운드 실력테스트전을 벌인다.

80년5월9일 프로데뷔 이후 지금까지 국내무대에서 26연속KO승을 기록한 白仁鐵의 주먹에대해 국내 권투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여왔으므로 이번대전결과에따라 숙제가 풀릴것으로 보인다.

26연속 KO승이라면 일단 주먹의강도를 높이평가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는가하면 일부에서는 白이 대단치않은 선수들을 상대로 KO행진을 해왔다고 말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20일의경기는 白의실력을평가할 객관적무대가 되는 셈이다.

동양권에서 무적을 자랑했던 한국선수들이 美國무대서는 맥없이 가라앉았다. 60년대의 徐强一、82년의 故金得九선수가 美國팬들에게 어필했을뿐이다. 朴鍾八이 미들급 통합챔피언 해글러에 도전하기위해 오벨메이아스와 대결했다가 KO로쓰러졌고 前세계챔피언 金相賢도 졸전끝에 아론·프라이어에게 항복했다.

WBA 주니어미들급 챔피언 데이비·무어(미국)의 흥행권을 쥐고있는 봅·애덤프러모터는 白이 매니언과의 경기서 잘싸워 상품가치를 인정받게되면 무어에 도전할수있는 기회를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매사추세츠州출신인 매니언은 78년 웰터급으로 프로무대에 데뷔했으며 白보다 3cm가량이 큰 180cm의 장신. 한때 WBC 17위였으나 최근 경기를갖지않아 랭킹에 빠졌다.

그러나 아마추어시절 뉴저지州 골든·글러브대회서 우승, 복싱전문지「링」의 베스트·복서로 선정되기도했다.

81년까지 20승(9KO) 1무2패를 기록했으나 82·83년 기록은 정확히 밝혀지지않고있다. 펀치의 파괴력보다는 스트레이트와 세기(細技)에 능한 왼손잡이선수다.

국내 관계자들은 白이펀치력에서는 매니언을 능가하나 기술면에서는 열세라고 진단, 결코 낙관 할수없는 대전이라는 의견이었다. 특히 白은 왼손잡이선수에 약한데다가 공격할때 커버링이 벌어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월27일 출국한 白은 LA서 훈련, 좋은컨디션을 유지하고있다는 소식이다.【金仁奎기자】

◇白仁鐵 KO행진

일 시	상대선수	KO결과
80·5·9	朴重正	2회
6·8	梁永七	2회
9·25	朴鍾賢	1회
11·21	崔炳天	3회
11·22	崔善甲	4회
11·29	崔旺鎬	3회
12·7	林福奎	3회
81·2·14	鄭永實	4회
4·19	泉谷浩	3회
6·23	사리나스	2회
8·21	크루즈	3회
10·11	金鎭南	3회
10·25	니콜라스	2회
11·28	윌리스코	3회
12·27	李商虎	12회
<OPBF J·미들 챔피언 결정전>		
82·2·14	크루즈	2회
<1차방어>		
3·21	겐지	9회
4·24	아브라함	3회
6·13	미찌하로	2회
<2차방어>		
7·4	레이바	2회
9·26	가랑	3회
10·23	요이	10회
<3차방어>		
12·11	콩락	3회
83·1·2	앤젤레스	3회
<4차방어>		
2·27	곤잘레스	3회
3·27	金宗鎬	7회

세계기록 43연속

프로복싱 사상 최다KO승 기록은 라이트헤비급의 아치·무어가 28년간 세운 1백45KO승. 최다연속KO기록은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43년부터 46년까지 빌리·팍스, 58~60년 라마·클라크가 세운 43연속KO승이 세계최다연속 기록이다. 70년대를 풍미했던 헤비급 조지·포먼은 70~73년까지 23연속 KO승을, 알폰소·사모라(73~75년)와 카를로스·사라테(74~77년)는 22연속KO승을 마크, 白仁鐵의 연속KO기록에는 못미친다. 白의 26연속KO는 세계 프로복싱사상 9번째 순위.

白이 국내최다 연속KO기록을 세우기전까지 朴鍾八이 78년8월부터 82년9월까지 16연속KO승을 기록했다. 종전 국내최다 KO기록은 朴鍾八의 22KO승. OPBF 타이틀 최다연속 KO방어선수는 朴鍾八로 11연속KO방어였다.

승패 예측어렵다

▲金裕昌씨 (복싱 평론가)=신·매니언이란 선수는 잘알려지지않은 선수여서 승패를 예측하기어렵다.

그러나 白仁鐵은 상승세를타고 있기때문에 무난히 매니언을 물리칠것으로 본다. 白仁鐵은 중량급 선수로는 상당히 몸이 유연하다. 단발펀치력도 좋지만 연타로 상대방을 KO시키는 기술이 뛰어나다. 보통때에도 적정체중을 유지하는것이 큰 강점이다. 체중감량을 하지않고 주니어미들로뛰기 때문에유리하다.

가드를 내리는버릇이 단점으로지적됐으나 최근 이 결점을 보완, 정상 컨디션만 발휘하면 무난히 세계무대진출 발판을 구축하게 될것같다.

프로야구

崔東原、첫승리

야간경기 青龍잠재워

崔東原이 83년 시즌처음 점화된 야간조명탑의 불빛을 받으며 프로야구데뷔이래 첫승리의 감격을 만끽했다. 18일 잠실구장에서 롯데선발로 등판한 崔東原은 스트라이크·존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쾌조의 컨트롤로 MBC 타자들을 범타로 유도, 9회동안 33타자를 산발 5안타, 포볼 2개, 삼진5개, 2실점으로선방, 첫완투승을 올렸다. 崔東原의 프로통산 성적은 6게임출장, 27·6회를던져 자책 10점을 마크, 방어률 3.26, 1승3패。

MBC는 2-4로 뒤지던 9회말 2死후 포볼로 나간 대타 柳承安대신 출장선수 명단에 빠졌던 趙滿을 代주자로 기용, 다음타자 金貞洙가 안타를 때려 2死1、2루가 됐으나 롯데 朴永吉감독의 어필로 아웃돼 역전찬스를 놓치고 6연패당했다。

三美에이스 張明夫는 대구에서 14게임째 등판、9회초 鄭求善의 2루타와 OB구원투수 張浩淵의 폭투와 보크로 결승점을 엊어 6-5로 신승、10번째 승리를 올렸다。

張은 네번이나 5실점을 당하고도 승리、통산 10승

◇17일전적

◆잠실

롯데	0	1	0	0	1	0	2	0	0	4
MBC	0	0	0	0	0	1	0	1	0	2

◆대전

삼미	4	0	1	0	0	0	0	0	1	6
OB	0	0	0	0	5	0	0	0	0	5

◇중간순위〈17일현재〉

팀	승	무	패
①해태	13	1	8
②삼미	15	0	10
③OB	14	0	12
④롯데	13	0	14
⑤MBC	11	0	17
⑥삼성	9	1	14

유럽·阿洲 5國출전

大統領盃국제축구 11개국 참가

제13회 대통령배 쟁탈국제축구대회에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5개팀이 대거출전한다.

17일 대한축구협회는 아프리카의 가나를 추가 초청、대회규모는 11개국 12팀으로 늘어났으며 경기일정도 6월4일~19일로 재조정됐다。

이날 확정된 예선조는 A조에 한국대표 이탈리아(제노아) 나이지리아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B조에 한국프로팀 네덜란드(아인트호벤) 뉴질랜드 수단 가나 인도。

경기방식은 2개조 예선리그를 거쳐 각조 상위 2개팀이 결선에 진출、패권을 가리며 예선리그는 서울 水原 大邱 釜山 全州 등지서 15일까지 펼쳐진다。

준결승전은 17일、3·4위및 결승전은 19일 서울운동장서 거행된다。한국대표팀은 4일 하오3시30분 이탈리아와 개막전을 갖는다。할렐루야에 입단할 許丁茂 소속팀 아인트호벤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대통령배대회에 참가하고 이탈리아 프로1부 9위에랭크돼 있는 제노아팀에는국가대표가 3명이 포함、이들 유럽의 프로 두팀이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실업야구 選手權대회 신설

實業團·金融團 따로 리그벌여

실업야구 선수권대회가 신설된다. 대한야구 협회는 침체된 실업야구의 활성화를위한 방안으로 22일 개막예정인 실업2차리그를 실업야구선수권 대회로 개편、운영키로했다。서울운동장에서 10일간 펼쳐질 제1회 실업야구선수권 대회는 實業團과 金融團의대결을 가미한것이 특징으로 실업5개팀과 금융4개팀이 각각 풀리그를 벌인뒤 상위2개팀씩 준결승전에 진출、토너먼트로 패권을 다투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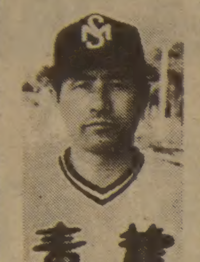
스포츠話題

잠실球場에「親告罪」해프닝

MBC、對롯데戰서 出場명단서 빠진 趙滿기용

9회말2死後 동점찬스에 監督 홍분

롯데抗議하자「어필플레이」적용 수습



◇兪百萬감독

프로야구 초여름밤의 해프닝이었다。9회말 2死후 포볼을 골라 간신히 잡은 동점찬스에서 기용한 핀치·러너가 부정선수라니。17일밤 잠실구장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MBC전서는 기상천외의 사태가발생됐다。2루까지 진출했던 MBC의 주자 趙滿가 부정선수로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나이를 속인 것도、소속팀을 속인 것도 아니었다。趙滿는 이날 MBC의 兪百萬감독대행이 출장시키지 않을 선수로「X표」를 해둔 선수였을 뿐이다。

MBC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白仁天감독이 구단과의 마찰로 팀을 떠난데다 兪감독대행이 팀을 이끌며 5연패를 기록、파국위기에 이르렀다。홈구장에서 또다시 2-4로 뒤져 6연패의 어두운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린 것일까。兪감독 대행은 제정신이 아니었다。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투아웃을 당한후 핀치·히터 5번 柳承安이 포볼을 골라 반격의 돌파구를 열자 발빠른 趙滿를 핀치·러너로 기용했다。

趙滿는 지난해부터 MBC의 代走者전문선수。그러나 자신이 출장선수명단에서 빠져있었음을 알지못했고 兪감독대행을 비롯한 MBC코칭스태프도 급박한 상황에 쫓겨 출장선수명단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6번 金貞洙가 역투하던 롯데 에이스 崔東原의 제3구를 강타、중전안타로 2死1·2루의 동점찬스를 만드는 순간 兪百萬감독대행은 춤이라도 출것같았다。

때맞추어 롯데 朴永吉감독이 경기직전교환했던 MBC출장선수 명단을 들고 나왔다。趙滿 이름위에는「○」표가 선명했다。

趙滿의 아웃이냐、원상복귀냐、아니면 MBC의 몰수게임이냐。

야구경기규칙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와 비슷한 조항이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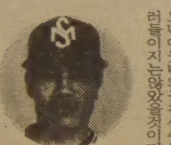
5번타자가 칠 차례에 6번이 나와 안타를 쳤다면 수비측 감독의 어필이있을 경우에한해 심판은 5번을 부정위타자로 아웃을 선언하고 6번을 다음타자로한다。

이때 심판원은 타순의잘못을 사전에 알고있다하더라도 양팀에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된다。이를「어필·플레이」라고한다。

趙滿의 경우는 이와 다른 것이었다。경기규칙에는 부정위타자에대한 조항은 있으나 부정주자에대한 조항은 없다。

정상적인 야구경기에서 부정(무자격)선수란 생겨날수도 없기때문이다。

美·日의 관례에따라 원칙대로 한다면 출장선수명단에서 빠진 趙滿는 아예 더아웃밖에 있었어야했다。감독이 아무리 다급하다해도더아웃밖의불참선수를불러들이지는않았을것이다。



◇대주자趙滿

룰상에 명시될 필요조차 없던 사태가 게임막바지에 일어났다。적용될 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판정을 내려야 할것인가。사태발생은 누구의 책임인가。

심판위원장 李基龍씨를 중심으로한 심판부는 긴급회의끝에 부정주자 趙滿의 아웃을 선언、경기종료를 명했다。趙滿를 아웃시킬 근거는아무데도 없었다。심판부가 1만관중과 수많은 TV시청자들을 위한 임기응변으로 부정위타자에대한 어필플레이를 부정주자에게 적용、경기를 원만히 끝냈을뿐이다。

사태는 실행위원회가 금년에한해 소수의 경기불참선수들도 더아웃에 함께두도록한 편법때문에 일어났다。더아웃밖에 있어야할 무자격선수가 代주자로 그라운드에 들어섰을때 막지못한 책임은 감독에게만있는가。심판부와 경기진행본부는 선수아닌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와도 막을의무가 없는가。

편법을 편법으로 다스린 판정에 함께 球都를 빛냈던 대타자 朴永吉감독(42·慶南高졸업)은 웃고、명투수 兪百萬감독대행(41·釜山商高졸업)은 울었다。【方錫岬기자】

張吉山 〈1744〉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04)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하우。내가 상번 서봐서 잘알지。궁궐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경기도의상번병들인데 일 초가 백이십 칠명이고 오초가 징번되니 모두 육백여명쯤이오。그중에 반쯤이 삼백여명이 근무를서고 나머지는 쉽니다。그 삼백여명 중에 그저 일초 정도가 궁궐 호위를 서니 이백여명도 못되오。그보다는 조련도 잘받고 병장기도 좋은 훈련원 급료병들이 문제지만 가만 눈치를 보았더니 실직에 나선 자들은 고작 절반밖에 안되는듯 합디다。먼저 훈련원을 잡아야할게요。그리고 우리는 저들과 같은 군복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거사할제 입고나가면 관군들이 사이에 혼란이 일어날 겝니다』

시동이가 설명하였으며 정원태도 만일이나 아전들에게서 얻어 들은대로 얘기하였다。

『우리 미륵 향도들가운데는 젊고 혈기있는 민병들이 있소이다。저들은 모두 몇달씩이나 한양 도성에 징번 당하여 성채와 한양의 골목을두구보다도 잘알고 궁성호위의 편제도 환하지요。그들 대부분이 검계 계원으로 들어있읍니다。병의 각 대를 우리들에게 이끌도록 하면 될니다。문제는 한양 도성외곽을 지키는 총융청과수어청입니다』

황회가 말하였다。

『염려없소。다 준비가 되어있소』

『그리고 그믐께가 좋은 것은 곧 추수기의 농번기가 되는 팔월이라 매삭상번으로 병력이 갈리는 기간입니다』

시동이 말하자 모두들 내달 그믐께로 거사일을 정하자는데 반대하는 이가 없었다。여환이 말하였다。

『자、그럼 대우 기일은 칠월 그믐이오。무기와 군복에 대하여 논의하지요。해서와 강원도의 병력은 따로이 청색 면포의 군복과 병장기를 준비할 것이지만 우리들은 어찌 하는게 좋겠소?』

『아까 나온바와 같이 병역을 지고있는 자들은 자기 군복을 입고、병장기는 숨기기 쉬운 것으로 해야되겠지요』

시동이가 말하였고 이런 일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황회가 말하였다。

『환도는 대처 풀무간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읍니다』

『파주에서 일부는 구할 수가 있을거요。송도에서 준비가 되는 모양이니까。그보다는 일반 향도와 백성들의 병장기로은 환도가 꼭 필요할 것이니 들어가는 날 소지하지말고 주인가를 정하여 상고의 상품인듯이 말짐에 꾸려서 날라다 놓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저희는 살주계의 연락처로 쓰는 객점이 있읍니다』

시동이가 말하였다。

『한양에 들어가는 이들은 그렇게 하고 일반 향도들은 양주목을 점령할 것이니 봉동이와 놓기구면 충분합니다。까짓 삼문이야 돌팔매만 날려도 무너지지요』

『그렇지、안에 들어서면 무기고에 장창과 궁시가 그득할테니까』

여환이 잠시 생각하는데 정원태가 물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동원할 작정이오?』

한국일보 533·2361

땅끝에서 오다 〈60〉

길 잃은 새 ⑧

金成一 作

준호는 책상 밑에 있던 수트케이스를 들어서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을 열었다。

『자、보라구。이 세원의 물건들이야。』

세원이의 양복、세원이의 칫솔、세원이의 면도기、세원이의 내의、양말、손수건、넥타이…… 나는 오늘 그녀석 대신 리비아로 떠나야 해。그런데 난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한는거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세원이의 이 물건들을 누가 받아야 하는거야?』

영실의 눈이 힘 없이 그것들을 돌아다보고 있었다。모두가 낯익은 세원의 물건들이었다。

『제 남편이 끝내 오빠의 짐이 되었군요』

『녀석은 약은 놈이야。언제나 일등을 하고는 내게 짐을 물려주는거야。국민학교 때도 그랬어。일등을 한 세원이는 앞에 나가서 대표로 상받고 이등 이하는 뒤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연습만 죽도록 하는거야。상장도 일등만 제것 주고 나머지는 일일이 순서대로 맞춰주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나눠주기 때문에 시상식 끝나고 제상장 찾느라고 아우성이고、우리가 식장 정리하느라고 바쁠 때 녀석은 선생님들과 사진 찍고、교내 신문 기자와 인터뷰나 하고 있었거든』

준호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있었다。

『영실이、생각나겠지? 너와 세원이가 결혼식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식장 문간에 앉아서 돈 세는 것 하고 있었어。내 좋아하는 여자 뺏기는 날에 문간에 앉아 돈 세면서、그것도 신부쪽에는 계속해서 선물이며 봉투가 들어오는데 신랑 쪽에는 찬바람만 부는 것이 속상하고 초조해서 또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결국 회장이 보내 큼직한 수표가 겨우 체면을 살려주긴 했지만…난 밖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내 인생은 거기서 이미 끝난 인생이야。그러나 넌 달라。넌 승리자의 와이프야。넌 이야기 해。네가 지면 임 준호의 쓰라린 패배가 어디가서 보상을 받으라는 거야? 나와서 네남편을 찾으라구。나한테 제발 맡기지 말란 말이야!』

그는 마구 세원의 물건들을 책상위에 꺼내놓았다。양복、내의、양말、손수건、칫솔같은 것들이 책상위에 수북하게 쌓이고 있었다。

영실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이를…그이를 찾지 마세요。그이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거예요』

『…?』

『그이의 마음은 이미 제게서 떠나 있어요』

『세원이에게 저 제비에 관한 일을 고백했단 말이야?』

『아뇨。그러나 그이는 요즘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같이 살아본 여자만이 느낄수있는 거예요。그이는 이미 제 사람이 아닌것을 저는 알고있었어요』

영실은 부시시 일어서더니 책상위에 꺼내놓은세원의 물건들을 품에다 끌어안고 문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준호는 그녀의 뒤에다 대고 말했다。

『영실이、제발 여기를 나와서 집을 지켜줘。영실이가 필요하게되면 편지하겠어。경찰서나 형무소로 편지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실은 이미 문 저쪽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어둠속의 증인이 문을열고 들다보며 이를드러내고 웃는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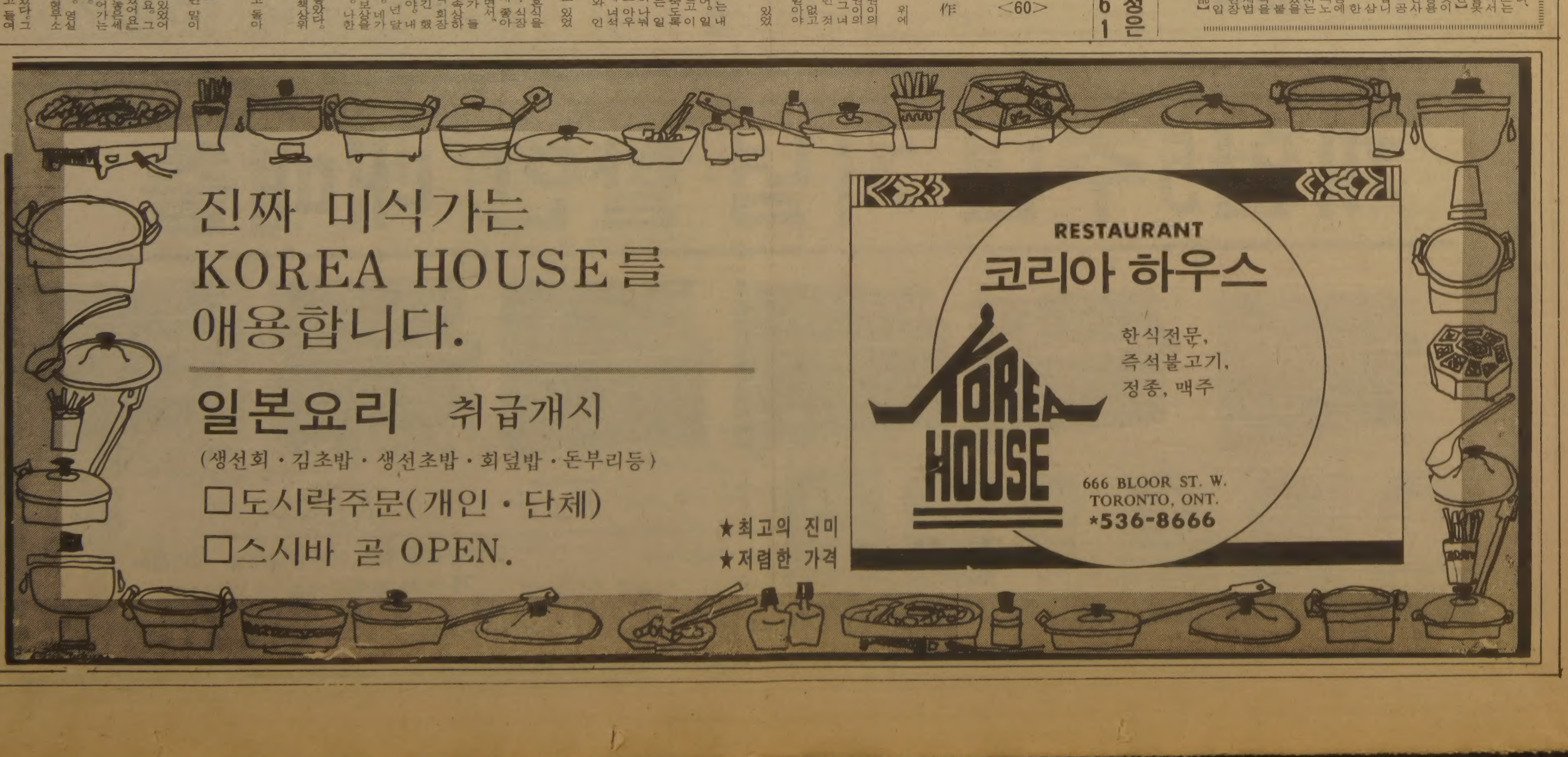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533·2361

「내로라」와 「내노라」

우리말 상식 〈질의환영〉

【문】「먹노라, 가노라」「왕이로라, 내로라」처럼 「노라」는 어미요 「로라」는 조사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신문·방송에서는 모두 「내노라」로쓰고있으니 제가잘못 알고있는것입니까?【강원철원군박병현】

【답】아닙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뜻이 맞습니다. 노라는 어미로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는 끝맺는 어미로 어떤사실을 선언하거나 공포할때 흔히 쓰입니다. 즉「가노라 삼각산아, 묻노라 한강수야, 세계만방에 고하노라」할때 「노라」를 쓰고 로라는 질의와같이 조사는 아닙니다만 어미로서받침없는(받침이있을땐 이로라) 체언이나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태나 동작을 높이 베풀어 말할때 쓰입니다. 즉 「제법 내로라하고 뽐낸다, 내가 왕이로라, 반장이로라하고 으스댄다」고 할때 「로라」입니다. 【校正部】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 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납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 중국산·한약·직수입
• 인삼·녹용 :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 칼국수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환영.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화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아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푸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셰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저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 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Dishwasher 급구함
월~금(AM11:30~PM2:30)전화문의는 2:30이후 요망
114 Laird Dr. 전화 : 421-6016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1,000마리에 $25
전화 : 766-8876

경험있는 남·녀 동력재봉틀(Power Sewing Machine) 작동하실분 구함.
전화 : 533-7172

주말 버라이어티 스토어
캐쉬어 구함(Etobicoke 지역)
전화 : 231-7944(가능한한 오전중 연락)

경험있는 캐쉬어와 써브마린 하실 여학생 구함
교통편리. 블로어 & 하이팍 Area.
전화 : 762-6578.

조그만 가게 맡아서 하실 분 구함.
전화 : 466-9864 Mr. 리

도넛숍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Full or Part Time
861-1521(가게), 222-3877(집)

홀타임 웨이트레스 급구함
KATSURA 일본식당
전화 : 960-9035 Mr. Honda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유경험자. 당일 페이.
전화 : 466-9864. Mr. 리

Store 경험있는 여자 Cashier 급구함.
전화 : 532-9638
(저녁 9시 이후 전화 요망)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무역인협회	535-3305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매 매

레스토랑·타번(42좌석) 서쪽 40마일
아주 좋은 이익의 가족비즈네스로 적당. 주인이 은퇴하므로.
전화 : 1-519-853-2990 또는 토론토 839-1315(저녁6시이후)

턱숍급매. 리스 5년+5년 옵션
주매상 $6,0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230 Oak St. Tor.

2층 벽돌집(방이 6개)
Only $59,900
Call Gino 전화 : 654-1010

1에어콘디쇼너 급매.
35,000 BTU Window Unit, 4 year-old.
4 Food 카드랙 매매. 전화 : 763-1358.

2베드룸달린 그로서리스토어 팝니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3226 Eglinton Ave. E. 전화 : 261-0739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직접 내방요망.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도넛숍 팝니다.
전화 : 1-666-1164(오후6시 이후) 1-668-4073

버라이어티가게 급매(건물포함)
가족비지네스로 적당.
버링톤지역 전화 : 1-639-7322(Mrs. Best)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건물포함)
주매상 $5,500.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BR.
Apt딸린 건물. 아스킹 $175,500+Stock
Hamilton 1-547-0841 Mr.조
•Variety Store 급매.
주매상 $6,500+Ticket. 3BR.
Apt딸린 건물매매. Asking $259,000+Stock.
Hamilton 1-383-1011 Mr.전

전망좋은 빵가게 팝니다.
276 Dundas E.
전화 : 961-9780

Mall 안에 있는 Fast Food
아스킹 $22,000. 패트릭·호 부동산
Call Jack 전화 : 593-8967, 245-2836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1) 드라이 크리너 팝니다.
좋은 장비, 매우 좋은 수입.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음.
아스킹 : $13만5천.
2) 레스토랑 150석. L.L.B.O.
좋은 리스. Banquet Eat-in, Take-out 써비스.
아스킹 : $82,900.
Mercury Realty Ltd.
전화 : 492-9031, Waymond Tam.

드라이크리닝(Depot) 급매.
전화 : 781-6774(B)
746-0981(R)

Grocery Store Business 급매(좋은 전망)
Asking $8,900. Call. Edmund.
Jony Jrustwell Realty Inc. 596-8170

Small Plaza 급매. Variety Store, Pizza, Video Shop 년수입 3만2천4백. 15 Miles Toronto 북쪽
전화 : 1-519-941-8318(5시 이후)

스토아 급매. Asking $39,900+Stock
Kingston Rd.×Markham(Scaboro.)
전화 : 267-2292

Tuck Shop 팝니다. (오크빌지역)
연매상 17만불. 권리금 $2만9천 + 스탁.
전화 : 844-5719(오전 10:30이전, 또는 오후8시이후)

꽃및 잡화 취급가게(미시사가 초입)
리스 : 3년+5년. 아스킹 $17,000+스탁
전화 : 624-7597 Mr.리

일년 사용한 Taylor Slush Machine 급매.
(신품 1만불함) 현재 $2,500에 판매함.
전화 : 284-9325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급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그로서리 Store 매매. 주매상 $7천($1만 가능)
아스킹 : $98,000 리스 : 10년 렌트 : $500
토론토 북쪽 50Km. 전화 : 1-852-7907

아파트, 가게달린 빌딩 팝니다.
아주 바쁜 지역. 전화 : 654-1010
Security Real Estate. Call Mike Cosco

피아노, 소파, 디쉬워셔, 월유닛 팝니다.
전화 : 661-4581

도시생활에 짜증이 나십니까?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밝은 공기와 자유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해답이 있읍니다.
써비스 스테이션-레스토랑-New 3 bedroom home
1/2 Million in Sale. asking : $22만5천
전화 : 705-636-5952(오전10시~오후4시)

매트리스가게급매. 낮은 렌트.
가게가 크고 건조저하실 있음. Bloor & Christie
전화 : 531-1730(오전10시~오후2시) or 656-5765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살림집 이층에 있음. 수매상 $3,500~$3,800
전화 : 243-2337

Gift Store 급매.
Bloor & Bathurst 지역.
전화 : 536-6590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챠챠,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파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마끼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셀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31-5351
499-3893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센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센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ㅇ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